

# '09년 11월 농식품 해외시장 동향



2009. 12

# - 목 차 -

## 1. 품목조사

- (일본) 유자 시장동향----- 2
- (싱가포르) 감귤 시장동향 ----- 16

## 2. 동향 조사

- (미국) FDA 한국식품 역류 동향----- 32
- (미국) 2009년 미국 유기농산업현황 ----- 40

## 3. 해외시장동향

- 일본----- 44
- 중국----- 61
- 미국----- 83
- E U----- 106

품목조사	일본의 유자 시장동향	오사카 aT
------	-------------	--------

## 1. 생산동향

### 가. 품목개요

- 유자는 밀감과, 밀감과에 속하고 실생은 열매를 맺는데 15년 정도 걸리나 수명이 길고 병충해에도 강하며, 과실 중량은 평균 110g 정도 이내임.
- 원산지는 중국으로 독특한 향과 강한 산미가 특징이며, 일본에서는 나라시대 (645~794년)에 이미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고문서(古文書)에 기재되어 있음.
- 산미가 강한 유자에는 구연산, 주석(酒石)산, 사과산 등 유기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로회복, 근육통을 예방하고 비타민 C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작용 등의 효과가 있음.
- 유자는 일본에서 일식요리, 송이버섯, 은어요리 등 요리의 맛을 살리는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프, 절임 등에도 향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음.
- 가공품에도 향신료, 과자, 유자간장, 유자주스, 유자된장, 유자차, 유자잼 등이 있음.

### 나. 연도별 생산동향

- 일본의 유자생산량은 14~20천톤 가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05년은 15천톤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전체 출하량 중 가공용 출하비중은 71% 수준임.
- 기타 감귤류의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07년부터 여름감귤, 핫사쿠, 이요칸, 네이블의 개별조사가 폐지되어 기타 감귤류에 포함됨.

〈유자의 연도별 재배 및 생산동향〉

연도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출하량(톤)	용도별 출하량	
				생식용(톤)	가공용(톤)
2001	1,944	18,354	16,306	5,631	10,975
2002	1,942	16,861	14,676	5,323	9,353
2003	1,875	15,071	13,688	4,794	8,894
2004	1,924	20,001	14,231	3,899	13,332
2005	1,872	15,231	14,323	4,195	10,128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 원예과

〈기타 감귤류의 연도별 재배면적〉

연도별	재배면적(ha)
2003	31,190
2004	30,710
2005	30,390
2006	30,030
2007	29,600
2008	29,100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청

## 다. 주산지 현황

- 유자의 주산지는 고치, 토쿠시마, 에히메의 시고쿠 3개 현이 재배면적의 약 60%, 수확량에서는 70%이상을 차지하며 도내(都内)의 도매시장에서도 시고쿠산의 유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음.

**<유자의 주산지별 재배 및 생산동향('09년)>**

주산지명	재배면적(ha)	수확량(톤)	주요 산지명 (시정촌명)
고치	631.1	7,290.5	安芸市, 香美市, 北川村
토쿠시마	368.5	2,965.5	那賀町, つるぎ町, 東みよし町
에히메	197.0	1,258.6	西予市, 鬼北町, 松野町
오이타	102.0	873.0	宇佐市, 日田市
미야자키	127.0	849.9	西都市, 小林市, 西米良村
카고시마	61.4	475.4	曾於市, 霧島市, 大口市
와카야마	28.9	266.3	古座川町, 紀美野町, 有田川町
<b>합계</b>	<b>1,968.1</b>	<b>15,595.4</b>	

자료: 농림수산성 특산과수생산출하실적조사

**라. 재배방법**

- 현재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유자는 주로 3계통으로 「木頭系」·조기과실품종으로 「山根系」·무핵(씨 없는 유자) 유자로 「多田錦」가 있음.
- 「多田錦」은 과실이 다소 작으며 향이 약간 떨어지지만 씨가 거의 없고 과즙이 많아 재배하기 쉬운 면이 있음.
- 유자는 감귤류에 많은 병충해에 내구성이 있어 대부분 소독이 필요 없고 다른 감귤류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 무농약 재배를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산근, 동지, 전천 등의 품종을 이용하고 있음.
- 주된 연간 재배 작업은 늦겨울~초겨울 전정(剪定), 봄~여름에는 제초와 적과(摘果), 10월 하순~11월 중순은 수확 및 선별, 수확 후~12월 중순에는 저장, 12월 중순에 출하의 순임.
- 시장에 유통되는 청유자는 과실이 완숙되기 전의 것으로 7~10월에 유통되며,

노랑계 완숙된 유자는 청유자 유통 후 10~12월에 시장에 유통됨.

**<일본산(에히메산) 신선유자 >**

단면 및 크기	1과실 크기	단면 형상	외피 두께
			
약 8cm	약 4cm, 2.5cm	씨는 1과실에 3~5개 들어있음	약 7mm

## 2. 유통현황

### 가. 유통경로

- 일본산 유자차의 경우는 유통량이 극히 미미하며, 일부지역의 특산물에 지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 어려운 상품임.
  - 제조업자 → 중·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 제조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 제조업자 → 소비자(인터넷)
  
- 한국산 유자차는 수입 후 대부분 한국 식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상으로 공급되며, 최근에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 판매 등도 증가하였음.
  - 수입업자 → 중·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 수입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 수입업자 → 소비자(대형 마트, 인터넷)

## 나. 포장형태

- 신선 유자의 포장형태로는 대부분 개별 포장과 2개~4개씩 묶음 포장임.

### <유자의 포장형태>

				
고치산 1개씩 포장 298엔	에히메산 3개씩 포장 158엔	와카야마산 4개씩 포장 398엔	에히메산 2개씩 포장 105엔	고치산 출하시 포장형태

- 유자차는 일정한 용량 규격이 없으나, 한국산의 경우 300g, 500g, 1kg 등이 가장 많으며, 일본산의 경우는 350g, 430g, 480g, 580g 등 다양한 규격이 시판되고 있음.
- 일본산 포장형태 특성 및 포장
  - 일본산은 대부분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병 윗부분을 천이나 종이로 포장하거나 종이 상자에 넣어 판매되며, 유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포장 디자인이 많음.
- 한국산 포장형태 특성 및 포장
  - 한국산 유자차는 병포장이 대부분이며, 유자사진이나 유자그림으로 포장 디자인 하였음.
  - 한글을 병용하여 한국산임을 강조한 상품이 많음.

### 〈유자차 포장형태〉

일본산			
한국산			

### 3. 소비동향

- 일본의 경우 현재 유자 가공 제품이 250가지 이상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유자 생산량의 70% 이상이 가공용 원료로 이용되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제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음. 주요 유자제품으로 유자 주스, 유자 간장, 유자식초, 유자 잼, 유자 절임류 등이 있으며 각종 식품의 향신료와 유자비누, 유자 입욕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 신선유자의 경우는 일본요리 장식용, 무침, 수프, 조림 등의 향을 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욕탕의 약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유자차에 대한 생산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산지의 특산물로서 지역에 한해서 판매되거나,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슈퍼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음.
- 최근 한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산 유자차의 맛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산 유자차를 많이 찾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겨울에 난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산 김치 판매량보다 유자차 판매량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4. 가격동향

##### 가. 유자 가격동향

- 기타 감귤류의 도매시장 단가를 보면 '08년에 kg당 244엔으로 최근 수치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으며, '07년에는 322엔으로 전년에 비해 64엔 상승.
- 한편,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저가의 한국산 수입으로 일본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기타 감귤류 전국 도매시장 가격 동향〉

(단위 : 톤, 엔/kg)

구 분	'05	'06	'07	'08
단가	308	258	322	244
수량	116,563	172,411	150,261	184,680

자료: 농림수산성조사, 청과물도매시장연보

##### 나. 유자차 소매가격

- 일본산 유자차 소매가격은 품질 및 상품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00g당 230~400엔 정도로 한국산(100~200엔)보다 2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유자차 소매가격은 품질 및 상품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100g당 120~200엔 정도로 일본산보다 약 2배정도 가격이 저렴한 실정임.

〈일본산 유자차 소매가격〉

상품	중량	소매가격	비 고
	350g	1,350円	건강식품을 강조한 유자 건강차로 판매되고 있음
	580g	1,350円	별꽃과 유자차를 강조하여 판매되고 있음
	480g	1,350円	유자차를 별도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음
	430g	1200円	유자차를 유자티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음

〈한국산 유자차 소매가격〉

상품	중량	소매가격	비고
	290g	630円	OEM방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되고 있음
	1kg	1,200円	한국 고품 산지표시가 되어 판매되고 있음
	300g	600円	제주도 특산물임을 강조
	1 kg	1,400円	한글로 한국유자를 강조하여 판매되고 있음
	1 kg	898엔	한국산 직수입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한글로 유자차라고 표시하고 있음

〈유자 관련 상품〉

상품형태	상품형태	상품형태	규격	소매가격
	유자잼	용도는 일반잼과 같으며, 유자가 함유된 잼임	150g	598円
	유자 탄산음료	유자향이 함유된 탄산음 료	500ml	98엔
	유자폰즈	간장에 유자과즙을 넣고 각종 양념을 가미하여 만든 유자간장이며, 생선요리, 냄비요리 등을 먹을 때 소스로 이용됨	360ml	138엔~ 598엔
	유자식초	유자과즙 100%로 구운 생선 등에 뿌려먹는 상품임	180ml	800엔

	<p>유자혼합 조미료</p>	<p>냄비요리와 우동 등 면류 등의 향신료로 사용하는 상품</p>	<p>25g</p>	<p>285엔</p>
	<p>유자후추</p>	<p>유자껍질과 고추를 섞은 조미료로 냄비요리, 면류, 된장국 등의 조미료로 사용하는 상품</p>	<p>40g~</p>	<p>108엔~ 560엔</p>
	<p>유자농축 주스</p>	<p>유자과즙과 벌꿀로 만든 농축주스로 뜨거운 물 또는 냉수에 5~7배 희석하여 마시는 상품임</p>	<p>500ml</p>	<p>1,350엔</p>
	<p>유자칩</p>	<p>유자와 유자후추가 가미된 스낵</p>		<p>78엔</p>
	<p>유자된장</p>	<p>유자가 함유된 된장</p>	<p>10g</p>	<p>155엔</p>
	<p>절임 야채 조미료</p>	<p>절임야채를 만들때 사용하는 조미료로 유자가 함유됨</p>		<p>138엔</p>

## 5. 수입동향

- 한국산 유자차의 경우는 수입이 매년 증가경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일본 수입시 기타 차류(0902.40.220), 또는 젤리, 마말레이드(2007.91.1000) 등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으며, 이 항목에는 유자차 외에 여러 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유자차만의 통계는 불가능한 상태임.

## 6. 통관제도

### 가. 관세율

HS코드	제품종류	관세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805.90.090	신선유자(감귤류과실/기타에 해당)	20%	17%
0902.40.220	유자차(기타 차류)	20%	17%
2007.91.119	유자차(감귤류과실/기타의 것/설탕첨가)	28%	16.8%

### 나. 수입통관절차

-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신청서가 필요하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음.
- 수입시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에 따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를 행함.

### 다. 수입검사항목

- 일본에서 유자차를 수입할 때는 식품검사를 받아야 되며, 식품환경검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검사항목에는 식품위생검사지침(식품중의 식품첨가물분석법)에 따라 합성 착색료(酸性타르계 색소), 솔빈산(검출한계 0.005 g/kg), 이산화유황(검출한계 0.005 g/kg) 등을 검사함.

## 7. 일본 시장 공략 방안

### 가. 한국산 현황

- 한국산 유자차는 주로 한인이 경영하는 한국식품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마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도 늘어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난방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며, 특히 한국산 유자차의 경우는 마시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 감기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한인매장에서는 김치 판매액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최근 한일간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 여행시 유자차의 맛을 본 경험이 있는 일본 여행객들이 일본에 돌아와 한국 유자차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구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차 구입하는 인기 상품이기도 함.
- 일본산은 시중에 거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유자차의 가격이 일본산보다 약 2배정도 저렴하며 한국산 유자차가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강한 상품임.

### 나. 틈새시장 공략방안

- 입맛들이기 사업을 통한 현지인의 소비기반 확충
  - 유자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우선 유자차 시음 등을 통하여 현지인들에게 입맛들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포장용기 개발
  - 한국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300g~1kg 정도의 다소 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잘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선 가격이 저렴한 소포장된 유자차를 제품화하여 손쉽게 유자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일본산의 경우는 대부분 병포장에 고급천이나 종이장식을 하여 상품 이미지를 고급화하여 선물용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한국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별도의 포장 없이 병에만 넣어 판매하고 있어 저가품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포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상품성 향상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중 소비 가능한 제품 개발
  - 유자차의 경우 겨울철에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겨울이 짧은 데다 그다지 춥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자차를 사계절 먹을 수 있도록 찬물에도 잘 녹는 유자차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최근에는 이러한 상품도 눈에 띄고 있음).
- 패키지 형태의 제품출시로 신규 수요 창출
  - 최근 한국산 전통차가 인기가 있는 만큼 유자차와 함께 생강차, 모과차, 매실차, 오미자차 등 다양한 상품과 함께 포장하여 선물용 등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됨.

<b>품목조사</b>	<b>싱가포르 감귤 시장동향</b>	<b>싱가포르 aT</b>
-------------	---------------------	----------------

## 1. 품목 설명

- 명칭: 한국명 - 온주밀감  
영문명 - Mandarin (Tangerine, Satuma, Clementine, Wilking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포함)
-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만다린 오렌지'로 통칭되며, 일본 감귤은 '미깡'으로도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 HS 코드 및 관세율

HS 코드	품 명	실행관세율
08052000	맨더린 (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클레멘타인·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Madarins incl Tangerines & Satsumas Clementines Wilkins & Similar Citrus Hybrids)	0%

- 감귤 수입시 관세는 0%, 소비세 (GST, 7%)가 부과되며 소비세는 수입자의 매출 및 매입 소비세 납부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

## 2. 유통 및 소비현황

### 가. 시장규모

- 감귤류 시장규모는 2008년 1년간 19,604톤, S\$24,578천불 수준. 이중 중국산이 14,436톤, S\$117,241천불로서 물량과 금액에서 73.64%, 70.15%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2위는 호주산으로 984톤, S\$1,778천불로서 물량과 금액에서 각각 5.02%, 7.23%를 기록함. 기타 수출국가로는 대만, 태국,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산 감귤의 톤당 가격은 S\$1,194.24불로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으며, 호주산은 S\$1,807.39불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임. 일본산의

경우 톤당 가격이 S\$5,071.80불로 중국산보다 약 4.2배나 높은 가격에 수입됨.

- 한국산 감귤의 경우 2008년 1년간 총 50톤, 69,000불 어치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전체 물량의 0.26%에 그치는 미미한 물량임. 한국산의 가격은 톤당 S\$1,366.94불로 중국산보다는 약 S\$270불 정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였으나, 품질이 비슷한 일본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을 기록함.

### 싱가포르의 감귤 수입 동향

(단위: 톤, S\$1,000, %)

	국가	2007		2008		2008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위가격 (S\$)
1	중국	13,227	14,732	14,436	17,241	73.64%	70.15%	1,194.24
2	호주	295	721	984	1,778	5.02%	7.23%	1,807.39
3	대만	438	1,128	465	1,238	2.37%	5.04%	2,665.12
4	태국	1,391	1,724	786	1,092	4.01%	4.44%	1,389.14
5	파키스탄	1,511	1,306	1,423	1,056	7.26%	4.29%	741.99
6	아르헨티나	1,164	1,711	642	765	3.28%	3.11%	1,191.07
7	남아공화국	363	636	326	569	1.67%	2.31%	1,742.43
8	브라질	96	121	202	255	1.03%	1.04%	1,262.71
9	일본	36	197	42	213	0.21%	0.87%	5,071.80
10	이집트	147	150	78	95	0.40%	0.39%	1,211.17
11	대한민국	57	87	50	69	0.26%	0.28%	1,366.94
총계 (기타국 포함)		19,085	23,019	19,604	24,578	100.00%	100.00%	1,253.73

자료 : IE Singapore

### 나. 유통경로 및 가격동향

- 싱가포르에 유통되는 감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함. 유통채널의 첫 단계는 수입상을 통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형태이나, 최근에는 대형마켓에서 취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직수입을 하기도 함.
- 싱가포르에 정부에서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도매시장인 파시르판장 도매센터(Pasir Panjang Wholesale Centre)은 한국과 같은 농산물경매·상장·청과법인 등과 같은 제도 자체가 없고 주로 수입업체 및 도매상들이 입주하여 자율적으로 거래함.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로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은 직접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후 도매상 또는 소매상, 슈퍼마켓 등에 직접 납품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판매방식은 수의매매 또는 일대일 흥정에 따라 결정되어, 도매가격이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나 조직이 없음
- 도매시장은 정부기관인 Housing & Development Board (주택공사)가 설립 및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부류별 사업자에게 모든 상점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건물 유지보수 관리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매출액·거래품목에 대한 통계자료가 관리되지 않음
- 감귤 판매처
  - 까르푸, 자이언트 등 대형 할인매장,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NTUC Fair Price, Cold Storage, Shop&Save와 저가 슈퍼마켓인 Sheng Siong 등에서는 과일류 전용 판매부스에서 다른 과일들과 함께 연중 진열·판매.
  - 대부분 정부주택단지(HDB) 인근에 위치한 채래시장(WET MARKET)의 과일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
  - 일본계 슈퍼마켓인 Isetan과 Meidi-Ya 및 현지 거주 외국인 고객이 많은 고급 슈퍼마켓인 FairPrice Finest, Cold Storage Speciality, Market Place 등에서는 일본산 감귤 판매.
  - 수입상과는 별도로 근년 들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슈퍼마켓에서 한국으로부터 감귤을 직접 수입하여 한국교민들에게 판매.

## 2008년 11월 현재 감귤소매가격

원산지	소매가격	규격	판매처	비고
중국산 (Sugar Tangerine)	S\$0.14	100g	자이언트	조사시점 현재 중국, 태국, 일본산 조생종 출시. 대부분 작은 크기의 과일임. 한국산은 출시되지 않음.
	S\$0.13	100g	까르푸	
	S\$0.12	100g	Shop&Save	
	S\$0.19	100g	NTUC FairPrice	
아르헨티나산 (Honey Murcott)	S\$0.75	1개	Cold Storage	
	S\$1.00	1개	재래시장	
태국산 (Honey Mandarin)	S\$1.99	1Kg	Shop&Save	
일본산 (Mikan)	S\$6.95	10개	FairPrice Finest	
	S\$11.90	10개	Isetan	

### 다. 소비동향

- 싱가포르의 비농업국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2008년 싱가포르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70.0kg.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은 파파야, 바나나, 수박, 두리안, 망고 등의 열대성 과일과 오렌지, 사과, 포도, 배 등의 온대성 과일임.
- 감귤은 북반구의 수확철인 12월부터 2월에 가장 많이 판매되며, 신선과일로 주로 소비.
- 싱가포르의 경우 감귤, 특히 만다린 오렌지는 중국 설날을 상징하는 과일로서, 중국 설날을 전후하여 특히 판매량이 증가함. 그 이유는 감귤의 광동어 발음이 금(金)과 동일하기 때문에 행운과 재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임.
- 설날을 전후하여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감귤을 박스로 구입하여 쟁반등에 담아 집안을 장식하며, 설날 이후 친지를 방문할 때는 귤을 짝수로 들고 가서 서로 교환함.

### 3. 무역 동향 (2008년 10월~2009년 9월 기준)

#### 가. 한국산 감귤 대 싱가포르 수출동향

-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간 싱가포르로 수출된 감귤은 물량은 44.75톤 금액은 US\$ 52,240불을 기록함.
- 수출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월별로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수출용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내수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산 감귤 대 싱가포르 수출동향

(AG Code 11642, 물량: 톤, 금액 US\$ 1,000)

구분	2008년			2009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물량(톤)	-	-	43.10	-	-	0.44	1.20	0.01	-	-	-	-	44.75
금액	-	-	44.11	-	-	2.21	5.86	0.06	-	-	-	-	52.24

자료 : www.kati.net

#### 나. 싱가포르의 감귤 수입동향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으로 자국에서 소비되는 감귤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산은 10월부터 5월까지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설날을 즈음한 1월에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됨. 남반구 국가인 호주, 아르헨티나산이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의 공백기를 메워주고 있으나,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음.

#### 국가별 감귤 수입 시기

수입국	호주산	아르헨티나산	중국산	태국산	한국산
수입시기	4월~11월	6월~10월	10월~익년 5월	10월~익년 7월	12월~익년 5월

## 싱가포르의 월별 감관 수입동향

(물량 기준, 단위: 톤)

국가	2008년			2009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호주	84	21			-	-	38	279	86	40	205	352	1,105
아르헨티나	55								27	23	97	212	414
브라질			22								25	66	113
중국	139	414	2,101	9,419	496	259	169	77	1	1		2	13,078
일본	1	6	10	5	4	3	3	1					33
태국	5	69	73	30	26	105	43	109	32	19			511
말레이시아	3	5	2	64	3	-	-	2	1		1		81
상기국 합계	287	515	2,208	9,518	529	367	253	468	147	83	328	632	15,335
기타국 합계	2	-	462	645	277	111	-	79	34		38		1,648
총계	289	515	2,670	10,163	806	478	253	547	181	83	366	632	16,983

## 싱가포르의 월별 감관 수입동향

(금액 기준, 단위: S\$ 1,000)

국가	2008년			2009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호주	111	24			-	-	107	454	187	98	411	552	1,944
아르헨티나	38								33	42	136	306	555
브라질			18								35	96	149
중국	159	518	2,403	10,034	493	296	211	92	2	3	1	5	14,217
일본	4	32	51	26	27	17	23	12	4	6	5	2	209
태국	9	88	89	42	34	170	67	168	43	29	-	1	740
말레이시아	1	3	1	40	2	-	-	2	1	-	1	-	51
상기국 합계	322	665	2,562	10,142	556	483	408	728	271	178	590	962	17,867
기타국 합계	5	-	447	937	246	123	-	157	47	-	93		2,055
총계	327	666	3,009	11,079	802	606	409	885	317	178	683	962	19,923

자료 : IE Singapore

## 다. 재수출 동향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계무역 발달해 있음. 특히 주변국 인 ASEAN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과일을 재수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감귤 재수출 현황

(단위: 톤, S\$1,000, %)

	국가	2007		2008		단위가격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7	2008 (SGD)
1	인도네시아	1,066	1,487	935	1,313	1,394.3	1,404.6
2	말레이시아	349	472	541	817	1,351.5	1,510.0
3	부르나이	221	365	190	326	1,654.4	1,712.3
4	베트남			326	212	0.0	648.2
5	캄보디아	10	18	30	53	1,800.0	1,770.9
6	필리핀	63	103	46	43	1,644.9	934.0
7	미얀마	1	1	4	10	1,983.3	2,547.0
	총계 (기타국 포함)	1,721	2,475	2,073	2,775	1,438.3	1,338.4

자료 : IE Singapore

## 4. 수출확대 방안

### 가. 경쟁국산과 비교

\*중국산

- 설날을 전후하여 거래되는 중국산 만다린 오렌지의 경우, 한국산 감귤보다 큰 종류이며 껍질이 두껍고 흰 섬유소가 많이 붙어 있으며 씨가 있음. 속 껍질도 한국산보다 질기고, 당도가 떨어짐.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에서도 상온에 장기간(2주 정도) 보관 가능.



만다린 오렌지 설날용 개별포장



껍질이 두껍고  
부피가 많음

- 11월경부터 수입되는 슈가 텐저린(sugar tangerine)의 경우 한국산보다 작고 모양이 불품없으나, 맛이나 질감은 한국산 못지 않게 달고 부드러움. 가격은 Kg당 \$1.20~1.90 정도로 매우 저렴함.



슈가 텐저린



한국산과  
맛과 질감이  
비슷함.

\* 기타 국가산

- 일본산 감귤의 경우 고급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되어 매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 감귤 자체는 한국산과 큰 차이가 없음.
- 아르헨티나산과 대만산은 중국산 만다린 오렌지와 유사함.



이세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미깡



아르헨티나산 Murcott



과일 소매상 가판에서 설날 준비 감귤을 고르고 있는 싱가포르인들

## 나. 수출확대 방안

- 싱가포르인들의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해외여행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됨에 따라, 보다 이국적이고 색다른 과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지금까지 고급 슈퍼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던 일본산 ‘미깡’과 같은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의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현재처럼 한국 내의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양을 보충하는 의미로서의 감귤 수출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제공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수입상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주요 슈퍼마켓 체인인 Cold Storage, NTUC, Shop & Save 등과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 자이언트 등에서 시식 행사등을 통하여 한국의 감귤이 일본의 미강에 뒤지지 않는 제품이며, 중국산이나 태국산보다 당도나 질감이 뛰어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킴.
- 일본의 미강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감귤도 중국산 만다린보다는 미강과 비슷한 과일이라는 차별화한 마케팅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 개발.
-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에서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선적에 유의.
- 싱가포르인들의 한국여행 패키지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들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인지도를 높인다. 예: 시식행사 경품으로 제주도 여행권 제공. 겨울철 감귤 농장 체험 여행 상품 개발 등.
- 상품 포장에 제주도 특성을 살린 고유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표만 보고도 한국산, 제주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설날 특수를 겨냥하여 중점적으로 제품 수출 증대. 이를 위한 포장 방법 개발. 예: 설날용 물품의 경우 주 소비층인 중국계를 위하여 빨간 색 상자에 '福', '恭喜發財', '大吉' 등의 문구를 상자에 표기



복을 기원하는 문구가 표기된 감귤 포장박스

## 5. 수입통관 제도

### 가. 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입 제도

#### 현 황

- 싱가포르의 교역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교역 활성화가 최대목표이며,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는 것은 수입품목의 대부분이 수출용 원자재이거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주변국가로의 재수출을 위한 용품이기 때문이며, 수입의 증가가 곧 수출의 확대와 연결되는 대외 의존적 경제산업 구조에서 기인
- 수입대상 품목은 대부분이 무관세이며, 일부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의 설정은 무역장벽 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따른 정책적 고려에서 책정

#### 수입 관련제도

- 통합 식품안전시스템 (Intergrated food safety system)
- 식물관리법 (Control of Plants Act) 및 그 보조 법령
- 수출입관리법(Control of Imports & Exports Act): 수출입허가 및 수입검사
- 세관법(Customs Act): 세관의 활동에 관한 제반 법규
- 식품판매법(The Sale of Food Act): 식품 제조, 유통 및 수입 검사 기준

### 나. 수입절차

- 싱가포르 기업으로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사업자등록신청 및 CR할당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신청

- 관세 및 소비세납부를 위해 세관(SC: Singapore Customs)에 등록신청
- Tradenet을 통해서 수입 신고함으로써 AVA 수입허가 신청 ([www.tradexchange.gov.sg](http://www.tradexchange.gov.sg))
- 신청자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송장 등의 구비서류를 AVA로 제출
- 승인이 나자마자, 화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화물통관허가(CCP)와 함께 신청자의 집하지로 송부
- 수입자는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 CCP의 승인번호를 꼭 확인해야 함 (eg A03) 만약 CCP에 A03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면, 수입화물은 파시르 판장 도매시장(PPWC)에서 의무검사를 받아야 함 (연락처 : PPWC 6773-4394, 9754-1041, 9018-4166, 9018-4177)
- 검사하는 동안, 신청자는 AVA의 검사를 위해 송장과 수입과일 및 채소와 함께 CCP를 제시해야 함
- AVA는 연구 분석용으로 샘플을 수거할 수 있음. 위탁화물 중 연구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보류 상태일 수도 있음

## 다. 수입시 검역 및 통관

- 통관업무 흐름도
  - 물품 도착 통보 (세관 → 수입자)
  - TradeNet System(EDI)을 통하여 통관 승인 신청(수입자 → 세관)
  - 통관 승인번호 접수 (세관 → 수입자)
  - 물품 수령 수입검사 → 통관완료
- 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입 및 환적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며, 2006년 10월 1일부로 각 신규 신청 시 S\$21.50의 신청비를 내야함

- 통관 여부 및 관세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미 판정이 되어 있으므로, 세관에서의 검사는 Invoice상의 품목과 실제 통관대상 품목과의 일치성 여부만을 간략히 검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사전 샘플링검사 또는 세관 통관 후 판매 전에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관을 위한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수행되고 있음
- 모든 통관절차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수입제한 품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며, 통관 수속 시 관련 승인번호만 통보함으로써 수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PSA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세관은 수입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처리를 종료하고, 수입자에게 물품 인수를 통보하게 됨에 따라 수입물품 도착 전 통관절차 종료
- 통관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통관만의 별도 대행법인은 없으며, 모든 운송업체(Forwarding Company)가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무역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관수속 및 수입검사가 요식행위처럼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검사는 무작위 샘플 사후 검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 매우 엄격함
- 식물관리법(신선과일 및 채소의 수입 및 환적)에 의거, 수입 신선과일 및 채소는 금지되어 있는 살충제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며, 식품 법규의 9번째 부칙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나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넘는 살충제 혹은 독성화학 성분이 있어도 안 됨
- 신선과일 및 채소 수입허가는 매화물마다 AVA(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온라인 신청

<http://www.ava.gov.sg/FoodSector/FoodTradersAndEst/LicRegFoodTraders/index.htm>

- 남미 열대지방에서 수입된 신선과일과 채소류는 매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
- 신선과일과 채소 컨테이너 (혹은 박스, 바구니)에는 수입시 다음과 같이 라벨이 붙어있어야 함
  - 1)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 2) 제품 내역
  - 3) 수출 날짜, 포장 날짜
- 수입 후 신선과일 및 채소는 AVA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서류 및 관능검사). 연구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가 필요할 수도 있음. 화물 중에 연구실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보류 상태일 수도 있음

## 라. 환 적

- 신선과일과 채소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환적 가능
- 무역업자들은 과일, 채소에 대한 수입 및 환적에 관한 AVA에 신청
- 환적비용 : 화물당 S\$3

## 마. 담 당

- AVA(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수입수출부(Import and Export Division) 5 Maxwell Road, #02~03, Tower Block, MND Complex Singapore 069110
  - Mon-Thu 8:30am-1pm / 2:00pm-6:00pm
  - Fri. 8:30am-1pm / 2:00pm-5:30pm
  - T) Miss Lily Ling 6325-7620      F) 6325-7648
  - Miss Teo Yen Ling 6325-7599
  - Mrs Koh (수입허가신청) 6325-7623

## 바. 수입식품의 판매

- 싱가포르에서 식품의 판매와 수입은 식품판매법(THE SALE OF FOOD ACT)과 식품규정(FOOD REGULATIONS)에 의해 관리. 모든 음·식료품 그리고 첨가물을 포함하는 식용의 농수산물은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것이든 수입된 것이든 관계없이 식품 공전에 규정된 식품표준과 라벨링 방법 준수
- 현행 식품공전은 싱가포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첨가물, 신기술과 다른 중요한 요인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바이러스 또는 식품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시행 중
- 식품공전은 특정나라의 규정에 근거를 있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수정하여 싱가포르의 상황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CODEX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는 선진국의 법과 규정을 참고로 하였다. 식품법과 정책의 목적은 싱가포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
- 식품판매법과 규정은 식품표준, 식품표시 조항기준, 식품광고 및 라벨기준, 허가된 식품 첨가물 목록, 식품첨가물 최대허용량, 화학물질 및 미생물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
- 신선농산물인 감귤은 가공식품을 위주로 제정된 식품규정의 라벨링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나 라벨링 부착시 일부 규정 준수
  - \* 라벨링에는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유형의 표시 금지
  - \* 정부당국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치료효과” 또는 “질병예방” 표시
  - \* 질병의 방지, 완화, 치료, 인체에 영향 : 특히 “암의 방지와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표현
  - \* 체질 개선과 보강을 가능케 한다는 표현: 예) “달리기하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

- 수입, 검역, 통관 관련 자료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 [www.ava.gov.sg](http://www.ava.gov.sg)

- 싱가포르 수출입 통계 자료

StatLink (Singapore Trade Statistics) : <https://statlink.iesingapore.gov.sg>

- 수입신고Tradenet : [www.tradexchange.gov.sg](http://www.tradexchange.gov.sg)

- 싱가포르 관세청, 수출입 관리법, 관세법 등

Singapore Customs : <http://www.customs.gov.sg>

- 식품판매법(The Sale of Food Act): 식품 제조, 유통 및 수입 검사 기준

Singapore Statue Online : <http://statutes.agc.gov.sg/>

- 싱가포르 과일 및 채소 수입 수출협회

Singapore Fruits and Vegetables Import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  
[www.singaporefva.com](http://www.singaporefva.com)

## 1. 한국식품 역류관련 개요

### 가. 일반현황

- 수입관리·통제제도의 하나로서 미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통제
- 외국식품의 대미수출시에는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치 못하는 경우 역류처리
- FDA 역류(Notice of FDA Action)시 명시된 기간 내 개선·보완 또는 이상없음을 증명하면 역류해제 가능

### 나. 연도별 현황

- 한국산 농수산물식품의 경우 2001년까지는 매년 역류건수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산 식품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되며 FDA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347건 기록
- ('97)212건 → ('99)331 → ('01)663 → ('02)408 → ('03)357 → ('04)400 → ('05)213 → ('06)113 → ('07)135 → ('08)347

○ 2008년도 식품별·월별 거부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총식품건수
면								1					1	0%
스낵	2			6	1	2	1	10	3			5	30	9%
수산물		1	2	12	10	6	8	57	7	6	2	4	115	33%
과실				1		2							3	1%
채소연관식품			3				4	15	4	1	1		28	8%
음료	4	2	9	16	2	5	10	9	4	2		2	65	19%
캔디	2		3	2	5	3	1	1	7	5	2	9	40	12%
소스			7				1	9	3	1		7	28	8%
스프								1		2			3	1%
한방재료(인삼등)			4		3			7	1	12			27	8%
기타										2	2	3	7	1%
식품억류건수	8	3	28	37	21	18	25	110	29	31	7	30	347	99%
총억류건수	19	21	51	61	27	31	54	124	40	44	18	48	538	
식품류/총억류수	42%	14%	55%	61%	78%	58%	46%	89%	73%	70%	39%	63%	64%	

○ 2009년도 식품별·월별 거부상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총식품건수
면			1	1				1	1				4	2%
스낵(과자류포함)	2	5	3	1	12		1			1			25	11%
수산물	2	3	15	9	4	3	5	1	5	3			50	23%
과실									2				2	1%
채소연관식품			2	1		2		1					6	3%
음료	4	4	17		4	1	5	1	11				47	21%
캔디	5	3	16	1	3	5	1		4				38	17%
소스		5	4	1	1		3		1				15	7%
스프, 가공밥				5					1	6			12	5%
한방재료(인삼등)				1	3						2		6	3%
축산물(계란등)	2												2	1%
기타	2	2	1		3		3	1		1			13	6%
식품억류건수	17	22	59	20	30	11	18	5	25	13			220	100%
총억류건수	34	90	66	50	40	31	37	27	41	33			449	
식품류/총억류수	50%	24%	89%	40%	75%	35%	49%	19%	61%	39%			49%	

## 다. 전월 (10월) 현황 : 식품 역류 건수 13건

- 특이사항: 9월에 비해 역류건수는 줄었으나 라벨링 오류와 리스테리아 검출 등 오염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미제출하여 역류된 식품(가공밥)이 많았음
- 거부식품 : 가공밥(죽)류 (6건, 1업체, 46%), 수산물(3건, 3업체, 23%), 인삼관련 (2건, 1업체, 15%), 기타 (2건, 2업체, 16%)
- 거부사유 : 공정과정자료미제출 (56%), 잘못된 라벨링 (19%), 부패/오염 (12%), 기타 (미등록약산성식품, 리스테리아포함등 13%)

## 라. 역류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 FDA 의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 은 미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실시
-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의 매 과정에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항
  - FCE No. 부재
  - 저산성식품의 공정과정 (SID No.) 미등록
  - 무허가 색소 (유해색소 및 색소라벨링 미부착)
  - 불결한 제조
  - 승인도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 영양표 부적합 (내용이 부족하거나 읽기 어려운 영양분석표부착)
  - 불법 라벨링 등

- 저산성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 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미국선적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필요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 Number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FDA Form 2541 을 통하여 등록을 하여 FCE Number 취득
  - 공정과정등록(SID Number: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FDA Form 2541a(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 을 통하여 Process Filing 을 하면 FDA 검토후 공정과정등록번호(SID Number) 부여
- 필수 표기 사항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은 의무사항이며 제품명, 영양 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육류, 과일, 채소는 자발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식품포장에는 의약품처럼 일정한 건강효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선전문구는 허위, 과대광고로 간주되므로 주의 하여야 함
- 미국 수출용은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물과 다른 영어표기나, 내용물을 알수 없는 표기는 서류통관이 될 상품도 정밀검사로 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통관시 라벨문제로 보류되었을 경우 라벨을 교정하여 재작업 할 수는 있으나, 재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보관비 등 추가비용 발생가능
-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및 첨가물은 FDA 의 승인 및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색소는 FDA 가 인증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 마. 식품관련 주요 거부 코드 및 설명

BACTERIA : 건강에 해로운 독성유해물질 함유

COLOR LBLG : 인공색소라벨링 없음

EXCESS SUL: excessive sulfites (아황산염이 과잉으로 함유)

FALSE : 잘못된 라벨링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라벨링)

FILTHY : 오염/부패 물질 함유

IMPTRHACCP : HACCP 불이행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INCONSPICU : 명확하지 않은 라벨링

INSANITARY : 오염/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LABELING : 잘못된 라벨링 (표시기준위반)

LACKS FIRM : 제조업자 정보 없음

LACKS N/C : 무게 및 크기를 표시한 라벨이 없음

LIST INGRE : 사용된 재료 라벨없음

LISTERIA : 리스테리아 검출

MFR INSAN :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NEEDS FCE : 미등록 약산성 식품

NO ENGLISH : 영어라벨 없음

NO PROCESS : 공정과정자료 없음

NUTRIT LBL : 영양분석표 라벨 없음

PESTICIDES : 안전하지 않은 농약 검출

POISONOUS : 독성물질검출

SALMONELLA : 살모넬라 검출

UNSAFE ADD : 유해 식품첨가물 함유

UNSAFE COL : 유해색소 포함

WRONG IDEN : 식품이름을 허위기재

YELLOW #5 : '황색색소 5번' 검출

## 2. 10월 한국산식품 FDA 거부 리스트

○ 식품 거부 건수 : 13건 (총 거부건수 : 33건)

일 자	제 품 명	거부사유
10/13	calamari salted w/red pepper	리스테리아검출
10/14	red ginseng extract gold (2)	공정과정자료없음(2)
10/19	frozen soft bread	알레르기 표시레벨링없음 잘못된라벨링 사용된재료 라벨링 없음
10/21	seasoned silk worm	미등록 약산성 식품 공정과정자료없음
10/26	dried pollack	부패/오염
10/27	frozen illex squid	불순물포함
10/28	CJ Cooked rice, porridge (6)	공정과정자료없음(6)

## 3. 최근 FDA 통관시 유의할 사항

- 중국산 식품 및 생필품의 안전성 및 식품위생문제와 함께 FDA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표기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관리를 강화가 시급함
-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 처방 등과 같은 허위 과장 표기는 할 수 없음

- 작년 중국산멜라민 파동이후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한국산 제품중 일부라면, 생식 등에서 멜라민 유사 성분 발견으로 통관거부 사례발생
  - 동여파로 한국산은 중국산과 같은 수준의 정밀통관검사 지속 추진중으로 수입업체 부담가중
- 최근에 자주 통관보류가 되는 주요 사례
- 저산성식품(LACF)임에도 공정과정등록번호(SID Number) 없이 수출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 통관 편이를 위해 식품을 사료용 등으로 허위기재하여 통관 보류 사례(예: 식용 번데기 통조림을 사료용으로 허위 표기)
  - 식품의 명칭을 조사관이 알수 없게 표기하여 서류통관 될 것을 정밀검사를 거치는 사례(예: 강냉이를 Pop Corn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Korean Cookie 나 Korean Snack으로 표기하여 정밀 검사)
  -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기능정보(Supplement Facts)를 표기하여야 하나 식품과 같이 영양표시(Nutrition Facts) 표기한 경우
  -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용 한글 포장으로 수출하거나, 색소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옥수수 수염차, 알로에 음료)

< 대 책 >

- 수출업계의 의식 개혁 : 중국산과 차별화하여 수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이나, 실패 할 경우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외면 불가피
- FDA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업계 및 관계자 교육실시
- 한국 식품 표준 용어 및 표기 집 발간
- 미국 수출업계 대상 식품통관 사례조사 및 사례 발간
- 최근의 멜라민검사강화에 대응, 미국수출 제품에 대한 미국 FDA의 멜라민(멜라민유사성분 포함) 제품검사방법에 준하는 검사기준적용 국내 사전검사 실시요망 및 제조 및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식품안전기준 준수 계몽 및 홍보강화 필요
- 최근 주류마켓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알로에 음료의 경우 당분표시와 관련하여 "No Sugar Added" "Sugar Free"를 표기한 제품 중 당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당분의 성분을 줄여 표기하는 경우 통관보류 또는 소비자로부터 공익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규정 준수요망

- 멜라민 검사는 작년까지는 아시아지역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현재는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등 4개나라 식품만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제외시킬려면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한국식품이 clean 하다'는 홍보가 필요함

#### 4. FDA 수산물 관련 안전 프로그램

- 미국은 고기,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안전 프로그램은 FDA가 책임지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FDA에서 의무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물관련 법규를 계속 업데이트에서 발행하는데 이러한 법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수산물 관련 법규의 토대로 사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경우, 미국 FDA가 정해놓은 안전관리기준인 HACCP이나 이와 동일한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야만 수입이 가능함.

#### 5. FDA 관련뉴스

##### □ 카페인 함유 알코올 음료...FDA 판매 금지 적극 검토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알코올 음료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음료회사 30곳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알코올 음료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했다. 문제는 카페인 함유 알코올 음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법성 여부임

현재 FDA의 조사 대상에 오른 제품은 '믹스 마스터 비버리지(Mix Master Beverage)'사가 생산하는 '24/7'과 '유나이티드 브랜드(United Brands)'의 '주스(Joose)' 등. 음료회사들이 이전에는 청량음료에만 넣던 카페인을 최근 알코올 음료에 첨가하고 있지만 FDA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FDA에 따르면 식품첨가제는 제조전에 안전성을 입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미국의 유기농 시장현황

- 2008년도 미국의 유기농매출은 \$246억불에 이르렀으며 이 중 식품부분이 \$229억불로 전체 유기농제품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유기농 무역협회에 의하면 '07~'08년도 전체 유기농제품의 평균성장률은 17.1%였으며 유기농식품의 경우 '08년도는 '07년도에 비해 15.8% 성장하였고 식품을 제외한 유기농제품의 성장률은 39.4%였음. 현재 유기농식품은 전체 식품판매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 ※ 유기농제품의 매출 및 성장률

유기농제품종류	매출액 (백만불)				성장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식품	13,831	16,718	19,807	22,929	15.8%
비식품	744	938	1,182	1,648	39.4%
유기농제품전체	14,575	17,656	20,989	24,578	17.1%

자료 : Organic Trade Association, Organic Industry Surveys, 2006~2009

## □ 유기농식품 판매트렌드

- 현재 유기농식품이 전체 식품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반식품에 비해 성장률이 높으며 지난 5년간 유기농의 비중은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

< 유기농식품매출, 미국전체 식품매출 및 유기농식품비율 >

년도	유기농식품매출액 (백만불)	전년도대비증가율	전체식품매출액 (백만불)	유기농비중
1997	3,594	N/A	443,790	0.81%
1998	4,286	19.2%	454,140	0.94%
1999	5,039	17.6%	474,790	1.06%
2000	6,100	21.0%	498,380	1.22%
2001	7,360	20.7%	521,830	1.41%
2002	8,635	17.3%	530,612	1.63%
2003	10,381	20.2%	535,406	1.94%
2004	11,902	14.6%	544,141	2.19%
2005	13,831	16.2%	566,791	2.48%
2006	16,718	20.9%	598,136	2.80%
2007	19,807	18.5%	628,219	3.15%
2008	22,929	15.8%	659,012	3.47%

자료 : Organic Trade Association, Organic Industry Surveys, 2006~2009

□ 유기농식품의 범주

- 과일과 채소가 유기농식품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08년도 유기농식품매출의 37%를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음료와 낙농제품이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음. '08년도에 전년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빵/곡물류(35%증가)와 음료류(32%증가) 였음.

□ 유통경로별 유기농 식품의 유통형태

- 유기농식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Natural market과 대형수퍼마켓체인이 35%정도를 판매하는 주요 유통채널이며 지역별 건강자연식품판매점에서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 식품이외 유기농제품의 매출과 성장률

- 식품이외의 유기농제품의 성장률은 유기농식품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며 빠르게 미국시장에 선보이고 있음. '08년도 비식품 유기농제품의 매출은 \$16억불로서 식품보조제, 의류, 일상용품이 주요 제품종류임.

### ※ 비식품 유기농제품의 매출 및 성장률

년도	매출액(백만불)	성장률
2005	744	32.5%
2006	938	26.1%
2007	1,182	26.0%
2008	1,648	39.4%

자료 : Organic Industry Surveys, 2006~2009

## □ 유기농표시 및 원료공급

- 전체 평균 절반정도의 유기농제품회사가 "USDA Organic" 표시를 하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5백만불 이상인 회사일 경우 83%로 높아짐. 현재 유기농제품표시를 하지 않는 회사들 중 20%도 향후 3년 이내에 유기농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USDA의 유기농인증표시가 제품의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유기농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유기농원료의 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되는 제품의 경우 한,두가지 유기농 원료의 부족으로 인한 전체 제품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 Private Label 제품

- 유기농제품제조회사 중 절반정도가 사적라벨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기농제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유기농제품의 수출

○ '07년도 조사에 의하면 유기농회사 중 절반정도가 제품수출을 하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 대부분의 경우 국제박람회 등에 대한 수출기회발굴의존도가 높으며 수입국의 유기농에 대한 각종규제 및 상이한 기준을 수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

해외시장동향	일      본	도쿄 aT
--------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1-9월 수입액

- 1-9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37조3,817억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4조 9,965억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3.3%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4.2% 감소함.

### □ 야채 수입동향

- 2009년 9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8%인 175,129톤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보면, 「신선야채」는 동 126%인 50,511톤, 「냉동야채」는 동 98%인 62,571톤, 「염장 등 야채」는 동 78%인 6,743톤, 「건조야채」는 동 93%의 2,848톤, 「식초조제야채」는 동111%인 2,328톤, 「토마토가공품」은 동 141%인 15,775톤, 「그 외 조제야채」는 동104%인 33,399톤, 「기타」는 동60%인 954톤이며, 「신선야채」, 「식초 조제야채」, 「토마토가공품」 및 「기타 조제야채」는 전년동월을 상회하였으며 「냉동야채」, 「염장등 야채」, 「건조야채」 및 「기타」는 전년동월을 밑돌았음.

### □ 신선야채의 수입동향

- 「신선야채」는 전년동월비 126%인 50,511톤으로 지난 달에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9월의 누계로 보더라도 전년동기비 101%로 전년을 웃도는 결과로 나타남.
- 수입량이 증가한 주된 품목은 결구양상추가 전년동월비4,682%인 191톤, 결구양배추가 동 832%인 1,171톤, 아스파라거스가 동 160%인 632톤, 양파가 동 145%인 21,335톤, 파프리카가 동 142%인 1,912톤 등으로 나타남. 수입량

을 크게 늘린 결구 양상추에 대해서는 미국만의 수입이었음. 또한 9월상, 중순의 일본국내산의 입하량이 적었던 브로콜리에 대해서도 동 127%인 4,712톤으로 증가하고 있고 모두 미국만의 수입이었음. 그 외에도 콜리플라워, 기타 양상추, 엔다이브 등, 셀러리 및 수박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만 수입이 되고있고 토마토, 호박 등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제일 많았음.

- 한편, 「신선야채」 중에서 감소한 주된 품목으로서는 완두가 전년동월비 26%인 19톤, 마 등이 동 31%인 39톤, 토란이 동 64%인 530톤, 생강이 동 67%인 994톤 등으로 나타남.

#### □ 냉동야채 등 동향

- 「냉동야채」은, 전년동월비 98%인 62,571톤으로 전년을 밑돌았으며 수입량이 증가한 주된 품목은, 시금치 등이 동 134%인 1,496톤, 딸기가 동 127%인 3,417톤, 브로콜리가 동 122%인 1,906톤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된 품목은, 완두가 전년동월비 61%인 726톤, 마 등이 동 62%인 83톤, 스위트 콘이 동 89%인 3,812톤 등으로 나타남.
- 또한 「토마토가공품」은, 전년동월비 141%인 15,775톤으로 수입야채의 각 유형별중에서 제일 비율이 성장했으나 기타 토마토가공품이 동 187%인 9,517톤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 양파 수입동향

- 9월의 수입량은 21,335톤으로 전년동월비 6,606톤(45%) 증가함. 수입액은 8억 22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39엔으로 전년동월비 5엔 상승하였음. 주 수입국은 중국이 93%, 미국이 6%임.

○ 외국산 양파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9월~10월의 외국산 양파의 입하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9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97%, 미국이 3%, 10월은 중국이 73%, 미국이 27%로 나타남.

구분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236	184	135	162	142	178
일본산입하량(톤)	3,016	2,976	2,669	3,091	3,095	3,291
외국산도매가격(엔/kg)	85	78	78	77	75	74
평균도매가격(엔/kg)	124	115	109	101	100	66

○ 09년9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47,643톤(전년동기비105%), 수입액은 56억00백만 엔(동118%)이었음.

□ 토마토의 수입동향

○ 9월의 수입수량은 289톤으로 전년동월을 29톤(11%) 상회함. 수입액은 70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242엔으로 전년동월 보다 22엔 하락함. 주요 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43%로 가장 높고 캐나다가 39%, 한국이 17%로 나타남

○ 09년 9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544톤(전년동기비 115%), 수입액은 4억13백만 엔(동 100%)이었음.

□ 가지의 수입동향

○ 무역통계에 의하면 9월 수입실적은 없었음. 9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83톤(전년동기비78%), 수입액은 41백만엔(동 75%)이었음.

□ 파프리카 수입동향

○ 9월의 수입량은 1,9125톤으로 전년동월을 562톤(42%) 증가하였음. 수입액은 7억46백만엔으로 1kg당 평균CIF가격은 390엔으로 전년동월 보다 162엔 하락함.

○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47%, 화란이 44%, 뉴질랜드가 8%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9월~10월의 외국산 입하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9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화란이54%, 한국이 27%, 뉴질랜드가 17%, 미국이 3%였으며 10월은 한국이 56%, 화란이 21%, 뉴질랜드가 20%, 미국이 3%로 나타남.

구분	9월			10월		
	상	상	상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92	96	87	94	78	83
일본산입하량(톤)	52	45	51	53	46	52
외국산도매가격(엔/kg)	497	518	500	410	389	415
평균도매가격(엔/kg)	458	484	463	403	393	417

○ 09년9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8,756톤(전년동기비113%), 수입액은 64억04백만엔 (동98%)이었음.

**□ 단호박 수입동향**

○ 9월의 수입량은 96톤으로 전년동월을 5톤(5%) 감소하였음. 수입액은 14백만 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142엔으로 전년동월보다 17엔 하락함. 주요수입국별 비율은 미국이 74%, 한국이 26%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09년9월~10월의 외국산 단호박 입하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9월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대부분이 뉴질랜드, 10월은 뉴질랜드가 95%, 미국이 5%로 나타남.

구분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3	0	3	3	0	3
일본산입하량(톤)	1,372	1,276	1,143	1,229	1,331	1,246
외국산도매가격(엔/kg)	218	3,676	220	253	1,254	242
평균도매가격(엔/kg)	172	146	135	122	136	156

- 09년9월까지의 수입물량은 81,908톤(전년동기비103%), 수입액은 47억93백만 엔(동80%)이었음.

#### □ 양배추 등 유채속 야채

- 9월의 수입량은 1,205톤으로(양배추:1,171톤, 배추:29톤, 기타유채속:5톤)으로 전년동월을 1,058톤(722%) 상회하였음. 수입액은 51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42엔으로(양배추:38, 배추:48, 기타유채속:832)으로 나타나 전년동월을 29엔 하회하였음.
- 결구양배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84%, 한국이 16%로 나타남.
-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양배추의 9월의 검사실적수량은 1,331톤(전년동월비 793%), 10월은 202톤(동204%)으로 나타남. 9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85%, 한국이 15%, 10월은 중국이 75%, 한국이 24%, 오스트리아가 1%로 나타남.
- 배추의 수입식물 검역검사의 동향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배추의 9월 검사실적수량은 30톤(전년동월8,706%), 10월은 0.5톤(동150%)로 나타남. 주요수입국비율은 9월은 한국이 97%, 중국이 3%, 10월은 모두 중국이었음.
- 양배추등 유채속의 9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2,890톤으로(전년동기비 314%), 수입액은 5억00백만엔 (동248%)으로 나타남.

□ 쌀기의 수입동향

○ 9월의 수입량은 644톤으로 전년동월을 56톤(8%) 하락함. 수입액은 5억59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869엔으로 전년동월보다 1629엔 하락함. 주요 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94%, 한국이 6%로 나타남.

○ 외국산의 입하량 및 도매가격 동향(순별)

구분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4	6	5	6	5	5
일본산입하량(톤)	6	7	9	10	8	10
외국산도매가격(엔/kg)	1,183	1,189	1,180	1,140	1,147	1,078
평균도매가격(엔/kg)	2,280	2,447	2,277	1,970	2,008	1,956

○ 09년9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990톤(전년동기비95%), 수입액은 17억41백만엔(동81%)이었음.

##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09년 11월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b>야채 총계</b>	104 065	18 049 863	173	108	93
무	9 976	557 406	56	113	82
당근	6 745	758 564	112	102	113
배추	11 169	534 119	48	104	96
양배추	11 079	519 832	47	116	54
시금치	1 212	537 795	444	101	103
파	3 793	1 219 628	322	96	111
부추	541	285 365	527	101	123
아스파라거스	174	130 428	749	96	103
(수입산)	173	129 722	749	97	103
브로콜리	2 432	424 395	175	170	51
(수입산)	82	20 470	250	71	80
양상추	5 346	616 142	115	109	77
오이	3 513	1 015 648	289	132	52
단호박	2 882	517 016	179	93	148
(수입산)	54	11 032	205	61	174
가지	1 705	509 694	299	99	98
토마토	4 982	1 170 231	235	148	76
미니토마토	1 010	449 045	444	138	82
피망	1 340	563 818	421	95	154
풋콩	15	13 639	898	70	109
감자	7 676	850 706	111	104	134
양파	11 532	1 110 524	96	103	128
(수입산)	464	34 969	75	170	103
마늘	259	145 511	561	97	72
(수입산)	129	24 611	191	102	124
생강	298	134 094	450	105	73
(수입산)	94	22 328	238	109	78
표고버섯	718	653 644	910	121	85
(수입산)	42	14 440	341	162	85
팽이버섯	1 229	418 664	341	106	102
(수입산 야채총계)	1 729	611 025	353	107	89

##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09년 11월 상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총량	40 405	8 240 468	204	106	89
국산과실총량	33 336	7 137 274	214	108	90
밀감	14 131	2 360 445	167	123	79
아마나츠 밀감	-	-	-	-	-
기타 밀감	309	96 623	312	110	68
사과 합계	6 840	1 540 534	225	99	99
(츠가루)	22	1 840	83	30	60
(죤나폴드)	1 204	223 517	186	86	101
(왕립)	836	159 240	190	110	99
(후지)	3 659	927 501	254	120	95
일본 배 합계	1 136	263 616	232	79	112
(행수)	1	405	307	538	93
(풍수)	10	2 084	203	618	106
(이십세기)	9	1 182	133	87	54
(신고)	123	26 637	217	45	119
감 합계	7 940	1 392 877	175	105	100
(단감)	4 616	793 713	172	134	91
(땡감)	3 325	599 165	180	80	110
복숭아	1	1 058	900	115	33
자두	12	3 663	303	779	77
매실	0	11	564	20	95
포도 합계	652	439 451	675	99	97
(텔러웨어)	4	1 238	345	4 483	98
(거봉)	285	204 435	716	96	101
밤	44	37 863	859	37	183
딸기	188	327 072	1 742	137	91
메론 합계	596	266 879	448	103	80
(온실메론)	357	184 830	518	100	78
(안데스메론)	15	5 616	365	135	102
수박	215	37 500	175	111	91
수입과실 합계	7 068	1 103 193	156	95	81
(바나나)	4 572	567 292	124	88	75
(오렌지)	331	47 679	144	106	86
(수입키위)	300	124 056	414	105	96
(수입멜론)	55	7 802	141	67	92

###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09년 1-9월 농림수산물 수입액 : 4조9,965억엔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
  - 국가전체 수입액(37조3,817억엔)의 약 13.3%점유
  - 비중별 : 농산물(2조5,656억엔, 51.3%) > 수산물(9,565억엔, 19.1%) > 축산물(8,6439억엔, 17.3%) > 임산물(6,083억엔, 12.1%) 순

####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09년1-9월		전년동기 대비	2008년1-8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37,381,783,140	-	△39.0	61,261,007,364
농림수산물	4,996,513,076	100.0	△24.2	6,588,833,157
농 산 물	2,565,615,210	51.3	△26.3	3,482,221,845
축 산 물	864,395,913	17.3	△18.0	1,054,096,327
임 산 물	608,349,161	12.1	△30.3	879,900,485
수 산 물	956,565,811	19.1	△18.2	1,169,650,689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9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명	1~9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동 기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95,854,558	91,949,465	4.2	태국	56,791,990	중국	38,361,031	한국	237,610
정제당	203,910	201,577	1.2	한국	72,819	브라질	68,227	프랑스	21,877
추잉껌	125,385	174,485	-28.1	중국	47,699	한국	31,885	태국	19,371
쿠키,비스킷,크레커	4,741,197	6,055,714	-21.7	미국	626,365	중국	555,254	한국	517,068
코코아조제품	1,322,372	1,205,964	9.7	싱가폴	920,924	한국	248,789	말레이시아	78,944
알콜음료	117,785,285	153,702,765	-23.4	프랑스	45,738,662	한국	11,590,994	이탈리아	10,933,425
쇼토닝구	183,590	314,399	-41.6	말레이시아	147,084	한국	28,861	미국	4,066
조제식료품	61,315,872	75,580,333	-18.9	미국	16,569,410	중국	7,392,467	한국	7,027,402
곤약	1,674,276	1,542,900	8.5	중국	1,469,877	한국	117,825	인도네시아	84,000
면실유	453,678	782,058	-42.0	호주	261,015	미국	190,427	한국	2,236
인삼	1,046,581	1,160,526	-9.8	중국	959,831	한국	59,390	대만	27,360

□ 한국산 신선채소류 수입동향(1~9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명	1~9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동 기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24,996	8,539	192.7	미국	12,769	한국	12,227	-	-
멜론	2,451,304	2,606,615	-6.0	멕시코	1,881,141	미국	390,215	한국	128,131
밤	1,014,156	791,067	28.2	중국	563,053	한국	438,137	이탈리아	12,966
딸기	1,741,106	2,143,037	-18.8	미국	1,502,867	한국	238,007	필란드	232
토마토	412,515	412,138	0.1	한국	174,302	미국	97,809	캐나다	90,728
마늘	1,400,499	1,528,746	-8.4	중국	1,352,123	한국	20,559	미국	17,933
파	2,486,084	2,656,561	-6.4	중국	2,483,197	한국	1,888	베트남	999
결구양배추	449,332	140,584	219.6	중국	219,725	한국	163,700	대만	65,314
배추	3,972	2,944	34.9	한국	3,972	-	-	-	-
기타 유채속	46,860	57,731	-18.8	중국	39,564	한국	5,931	호주	1,155
오이	7,592	4,310	76.1	한국	7,592	-	-	-	-
가지	41,235	54,877	-24.9	한국	41,235	-	-	-	-
고추속,피망속	6,554,530	6,671,974	-1.8	한국	4,151,160	화란	1,352,765	뉴질랜드	1,050,605
파프리카	6,404,279	6,519,204	-1.8	한국	4,001,126	화란	1,352,548	뉴질랜드	1,050,605
호박	4,792,704	6,329,774	-24.3	뉴질랜드	3,845,642	멕시코	888,649	한국	21,706
건조야채	17,015,090	19,806,402	-14.1	중국	14,096,305	미국	1,643,352	한국	248,270
건표고	3,951,527	4,911,228	-19.5	중국	3,718,531	한국	231,491	버어마	1,238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09.9월)

- 가공식품(종합)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89.4로 전년동월 대비 0.0%로 전년 수준이었음. 가공식품(주류를 제외)은, 86.5로 전년동월 대비-2.6%로 약간 하락함.
- 부문별로 보면, 주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타 조제식료품이 약간 상승하였음. 한편 당류, 조미료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과자가 상당한 정도 하락하여 축산가공품, 제 곡분가공품, 음료가 약간 하락하였음.
- 가공식품(종합)의 9월 수입액은 1,044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16.6%로 큰 폭으로 감소함. 가공식품(주류를 제외)은 894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17.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축산가공품, 제곡분가공품, 당류, 과자, 음료, 조미료, 그 외의 조제식료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산가공품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농산가공품, 주류가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음.
- 축산가공품의 9월의 수입수량 지수는 89.2로 전년동월대비-4.1%로 약간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조제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돼지고기 조제품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여 소세지가 약간 증가하였음. 한편, 햄·베이컨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아이스크림류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기타 축산조제품이 약간 감소하여 분유류, 내츄럴 치즈가 약간 감소하였음.
- 수산가공품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78.9로 전년동월대비 1.8%로 약간 상승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가공장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참치 캔 등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여 어란 조제품등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음. 한편, 게 조제품이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고 새우조제품, 기타 수산조제품등이 약간 감소하였고 오징어조제품이 약간 감소하였음.

- 농산가공품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86.0으로 전년동월대비 2.5%로 약간 상승하였음. 야채 부문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93.2로 전년동월대비 8.4%로 상당히 상승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스위트 콘, 조제토마토, 두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토마토 워레·페이스트, 기타 야채조제품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음. 한편, 죽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감자 등이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음.
- 과일부문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70.6으로 전년동월대비-11.1%로 크게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낙화생조제품, 파인애플캔, 썬 낙화생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믹스 프루츠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복숭아통조림, 기타 과일조제품, 너트조제품이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고 감귤류 등이 약간 감소하였음.
- 제곡분 가공품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79.7로 전년동월대비-3.2%로 약간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결속파스타, 케이크 믹스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쌀가루조제품, 소맥분조제품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여 식빵·건빵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음. 한편, 파스타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고 기타면류가 약간 감소하였음.
- 당류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74.5로 전년동월대비-24.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함밀당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정제하지 않은 설탕, 그 외의 당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과자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105.1로 전년동월대비-6.1%로 상당히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비스킷·크래커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초콜릿과자 등이 약간 증가하였음. 한편, 기타 과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코코아가루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여 초콜릿·코코아조제품, 캔디류가 약간 감소함.

- 음료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90.3으로 전년동월대비-4.4%로 약간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오렌지과즙, 사과과즙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야채 주스등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청량음료, 그레이프후르츠 과즙, 기타 감귤과즙등이 대폭 감소하고 포도과즙이 약간 감소함.
- 조미료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84.9로 전년동월대비-19.7%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풍미조미료, 토마토케첩, 식초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기타 소스가 상당한 정도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 혼합조미료가 약간 감소하였음.
- 가공유지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143.6으로 전년동월대비 4.3%로 약간 상승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마가린이 약간 증가함.
- 기타 조제식료품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89.4로 전년동월대비 3.1%로 약간 상승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커피를 기초로 한 조제품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밀크 조제품, 그 외 가당 조제품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였고 그 외 조제품이 약간 증가하였음. 한편, 스프류가 약간 감소하였음.
- 주류의 9월 수입수량 지수는 108.2로 전년동월대비 16.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품목별로 보면, 위스키, 그 외의 주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와인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으며 합성청주가 상당정도 증가하였고 리큐어 류가 약간 증가하였음.

(자료 : (사)식료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임류	1,135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김치	249	320	351	386	379	313	284	252	243	237
(%)	(21.9)	(27.2)	(29.6)	(32.6)	(33.6)	(30.3)	(29.2)	(25.8)	(25.4)	(24.9)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누계	증감율
절임류전체	1,131,926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689,566	-3.6
간장절임류 (김치)	560,439 (379,606)	496,491 (313,410)	466,037 (284,914)	433,302 (252,123)	425,309 (243,028)	423,467 (237,937)	295,503 (158,110)	-6.6 -9.9
아사즈케류	164,723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18,704	-0.2
소금절임류	149,348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99,882	0.9
초절임류	107,756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76,040	-1.5
쌀겨절임류	89,791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62,351	-2.6
주박절임류	35,460	35,669	37,665	34,983	34,508	35,099	23,867	-5.4
된장절임류	9,930	9,047	8,044	7,974	8,008	7,632	5,528	-3.5
기타절임류	14,478	14,377	14,945	14,567	14,486	12,546	7,691	-14.9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주의: 쌀겨절임류: 단무지포함)

□ 일본의 김치 시장규모

구분	시장규모 (톤)					
	2003(점유율%)	2004(점유율%)	2005(점유율%)	2006(점유율%)	2007(점유율%)	2008(점유율%)
합계	410,460 (100.0)	345,611 (100.0)	316,067 (100.0)	274,749 (100.0)	265,113 (100.0)	261,001 (100.0)
일본산	379,606 (92.5)	313,410 (90.7)	284,914 (90.1)	252,123(91.7)	243,028(91.6)	237,937(91.1)
한국산	30,854 (7.5)	32,202 (9.3)	31,153 (9.9)	22,626(8.3)	22,085(8.4)	23,064(8.9)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톤,백만엔,엔/kg)

구분	수입실적(한국산)				수입단가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6	10,034	4.1	4,125	38.8	411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주의: 순수 한국식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0292와 200590299를(2007년부터 관세번호 변경 2055.99-919, 2055.99-999로 변경) 합산한 수치임.

####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45,333	26,410	140,648	26,211	133,661	26,308	113,433	22,455
한국	31,153	9,817	22,626	7,468	22,085	7,522	23,064	7,940
기타	114,180	16,593	118,022	18,743	111,576	18,786	90,369	14,515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4. 경제동향

#### □ 경기동향

- 경기는 회복되고는 있으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고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수출은 아시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은 회복하고 있음.
  - 기업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게 되어 있음. 설비투자는 하락이 멈추고 있음.
  - 기업의 업무상황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템포는 늦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움.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물가동향을 종합해 보면 완만한 디플레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어려운 고용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해외경제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 경향이 계속되는 것이 기대됨. 한편, 고용정세의 한층 더 악화나 해외경기하락 염려, 디플레나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영향 등, 경기를 내리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가계의 지원에 의해, 개인소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산업과 고용을 낳아, 일본경제를 자율적인 회복궤도에 실어 내수를 중심으로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도록 정책운영을 실시. 또한,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환경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중점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경기의 하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세워 정리.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일본경제가 물가안정 하에서의 지속적 성장경로로 복귀하기위해 계속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적절하고 기동적인 금융정책운영을 기대하고 있음

##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하락이 멈추어지고 있음.
- 주택건설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공공투자는 건조한 추이를 보임
-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입은 회복되고 있음. 무역·서비스 지수의 흑자는 증가하고 있음

## □ 기업활동과 고용정세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화되고 있음. 또한 기업업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단지 중소기업에서는 그 속도가 늦으며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 고용정세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포함세임.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
- 주가(일경평균주가)는 10,200엔대부터 10,300엔대까지 상승한 후 9,600엔대까지 하락하고 있음. 달러환율은 90엔대에서 92엔대까지 엔 하락후, 89엔대까지 엔 상승으로 추이되고 있음.

(자료 : 11월20일 내각부 발표)

해외시장동향	중      국	베이징 aT
--------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 외국자본, 중국 서부지역 급성장에 투자 증가

중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서부지역에 외국자본이 몰리고 있음. 따라서 금년에 진행된 제13회 중국 동서부 협력투자무역상담회, 제18회 우루무치 대외무역상담회, 제6회 중국-아시안 박람회, 제10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서 유치한 외국자본은 과거 여러 해 보다 대폭 증가. 유관 전문가는 앞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부지역은 커다란 시장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

사천성 성도에서 진행된 제10회 중국서부 국제박람회에서 까르푸 차이나 부사장 러중립(呂中立)은 “까르푸는 금년에 성도에 2개 매장을 신설하고 향후 2년 내에 사천성에 9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것”이라고 밝힘.

금융위기 충격으로 상반기 거액의 적자를 냈음에도 까르푸는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음. 까르푸는 사천성의 達州, 廣安, 資陽, 德陽, 青白江, 大竹 등 6개 도시와 협력계약을 체결, 향후 몇 년 동안 상기 6개 도시에 매장을 설립하게 된다. 총 투자액은 3억 위안을 초과. 이에 따라 2011년까지 까르푸는 사천성에 18개의 매장을 갖게 됨.

서부의 투자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외국기업이 까르푸만은 아니며. 까르푸의 경쟁사 월마트도 서부지역에 대한 야심 찬 확장계획을 내놓음. 내년에 사천성에 5개 매장을 설치하는 것 외에 향후 3년 내에 성도에 서부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범위를 전체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으로 넓히게 됨. 설립예정인 성도물류센터는 深圳, 嘉興, 天津 이어 월마트의 네 번째 물류센터가 됨

월마트 지역본부담당 매니저 龐國明은 월마트는 중국 서부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며 “서부지역은 월마트의 글로벌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

한편 까르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만계 대형유통업체 RT-MART도 뒤질세라 부지확보에 가담했다. 이번에 RT-MART는 남충시(南充市)에 3만6천평방미터의 매장건물을 확보, 기존의 매장을 확장해 남충시 최대 규모의 마트로 만들 예정

글로벌 금융위기에 서부지역이 보여준 좋은 경제수치는 외국자본을 끄는 ‘광고 효과’를 낳고 있음 상반기 GDP 성장률 11.8%, 도시고정자산투자 증가율 42.1%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증가율 19% 등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평균 수준을 초월하는 서부지역이 고속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통계수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실제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대체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감. 10월17일 서부박람회기간에 열린 “사천-다국적기업 협력좌담회 및 조인식”에 참가한 110여개 유명 다국적기업은 사천성과 60여개 프로젝트에 사인한 외국기업의 총 투자액은 50억달러에 달함.

대외개방 30여 년간 중국이 유치한 해외투자는 대부분 동부연해 지역에 집중. 한편 동부연해지역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곳임. 동서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것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대두. 따라서 중국정부는 10년 전에 12개성에 망라된 서부대개발 계획을 내놓게 됨.

10월16일에 열린 서부박람회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은 흔들리지 않으며 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강도 역시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함. 그는 중국은 산업이전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과 시범단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하며 외국자본이 서부지역의 하이테크 산업, 선진적인 제조업, 현대농업과 현대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함.

## □ 미국, 일본, 유럽 등 수입시장서 중국제품 비중 증가

중국 상무부 대변인 요건(姚健)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이들 국가의 수입시장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글로벌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수요가 감소되어 중국의 대외무역이 위기에 직면 즉 금년도 3분기 중국무역수출입 총액은 15,578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20.9% 감소했으나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금년 1-9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수입금액은 1,84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9% 감소했지만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4%로서 전년 동기보다 3.88%p 제고.

9월까지 방직품 및 의류분류에서 9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방직품 및 의류의 수입 규모는 124.3억m<sup>2</sup>로 전년 동기보다 0.3% 감소했으나, 미국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방직품 및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지난해 동기보다 3.8%p 상승.

금년 1-9월 일본의 중국산 방직품 및 의류의 수입총액은 879.2억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14.66% 감소했지만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방직품 및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전년 동기대비 3.99%p 상승.. 유럽도 금년 7월까지 중국산 관련 제품의 총 수입금액이 1614.4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1.6% 감소했으나, 유럽시장에서 중국산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대비 2.94%p 증가한 17.41%에 달함

## 2. 시장동향

### □ 금년 중국 농기계 산업규모 2,300억위안 초과전망

중국 농업부 장타오린(張桃林) 부부장은 「중국농업기계화법」이 시행된 이래 중국 내 농기계의 생산규모와 판매규모가 빠르게 증가해왔다고 밝힘. 중국 내 농기계 생산총액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했으며 2009년의 경우 산업 규모가 2,3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농업부 장타오린(張桃林) 부부장은 중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5주년 기념 및 농기계안전감독관리조례 관련 좌담회에서 이 같은 수치를 발표. 이번 회의는 중국 내 전국인민대표대회 농업과 농촌위원회, 국무원법제판공실, 농업부가 연합으로 개최한 것임.

장타오린 부부장은 농업기계화법이 반포시행 5년래 중국의 농기계 총량은 연평균 6%p이상의 증가폭을 지속해왔으며 2009년 중국 내 농기계 총동력은 8.75억 kW 달할 전망. 농기계 장비의 구조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고 고효율, 다기능, 고성능 농기계가 빠른 속도로 보급중. 2008년 중국 내 중대형 농업용 트럭, 이앙기, 옥수수 연합수확기의 보유량은 2004년 수준대비 각각 1.69배, 2배, 7.4배 증가.

동시에 농기계관련 애프터서비스 산업도 빠른 성장을 가져왔고 농기계전문합작사 등 서비스조직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음. 2009년 중국 내 농기계서비스업의 매출규모는 4,000억 위안을 초과해 2004년 대비 1,500억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국 농업의 기계화수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파종, 경작과 수확의 기계화 수준이 연평균 2.7%p 증가

올해 중국 내 농업의 종합기계화 수준은 48%를 초과할 전망이며 2004년대비 3.7%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1-9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1-9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무역총액은 662.7억불로 동기대비 12.8% 하락하였으며, 그 중 수출액은 280.1억불로 동기대비 6.4%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382.6억불로 동기대비 17.0% 하락. 무역 적자는 102.5억불로 동기대비 36.5% 하락

1-9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특징은 다음과 같음. 곡물 수출량은 96.6만톤으로 동기대비 37.4% 하락하였고 수출액은 5.3억불로 15.1% 하락. 수입량은 225.1만톤으로 동기대비 82.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6.3억불로 6.2% 증가하였음

그중 쌀, 옥수수 수출이 하락. 쌀 수출량은 56.1만톤으로 동기대비 31.1% 하락하였고 옥수수 수출량은 8.6만톤으로 48.3% 하락.

밀, 보리 수입은 증가세를 보임. 밀 수입량은 58.5만톤에 달하며 지난해 동기에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음. 밀 수입량은 140.7만톤으로 동기대비 50.8% 증가

설탕 수입량은 95.3만톤으로 36.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3.3억불로 동기대비 15.1% 증가하였음. 수출량은 4.9만톤으로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466.8만불로 동기대비 29.7% 증가하였음. 무역 적자는 3.1억불로 동기대비 14.1% 증가하였음.

채소 수출량은 588.6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하락하였고 수출액은 46.9억불로 동기대비 1.3% 증가. 수입량은 6.4만톤으로 동기대비 20.2% 하락하였으며 수입액은 0.7억불로 동기대비 17.1% 하락. 무역흑자는 46.2억불로 동기대비 1.7% 확대.

과일 수출량은 354.1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6.2억불로 동기대비 15.2% 하락. 수입량은 182.6만톤으로 동기대비 35.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3.1억불로 동기대비 39.2% 증가. 무역 흑자는 13.1억불로 동기대비 38.9% 하락.

축산물 수입액은 46.9억불로 전년대비 21.1% 하락하고 수출액은 28.3억불로 동기대비 13.5% 하락. 무역 적자는 18.6억불로 동기대비 30.4% 하락.

수산물 수출액은 75.1억불로 동기대비 1.4% 하락하였고 수입액은 39.2억불로 동기대비 5.8% 하락. 무역 흑자는 35.9억불로 전년대비 3.8% 증가

## □ 중국산 채소, 대일 수출 전면 회복세

일본농림수산성에 의하면 9월 중국산 신선, 냉동과 가공 채소 수입량이 지난 동기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여, 대일 수출이 전면적인 회복세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월에 수입된 중국산 신선채소는 24,800톤으로, 지난동기대비 8% 증가함으로써 연속 2개월 동기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냉동채소 수입량은 6,100톤으로 4%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가공채소 증가폭도 22%에 달해 지난해 대비 연속 3개월 증가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올해 일본산 채소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높은 상황이 더욱 엄중하며 또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채소 수요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당근, 마늘, 양배추 등의 수출량은 각각 28%, 10%, 5.7배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3.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 가. 수출입 동향 개요

2009년 9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35.8억달러로 전월 대비 4.7억달러 증가하여 15.2%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 2009. 1~9월 농산품 수출액은 277.5억달러로 동기대비 6.5% 감소.

2009년 9월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46.2억달러로 전월 대비 2.9억달러가 증가하여 6.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0.2% 감소

2009.1~9월 농산품 수입액은 379.7억달러로 동기대비 17.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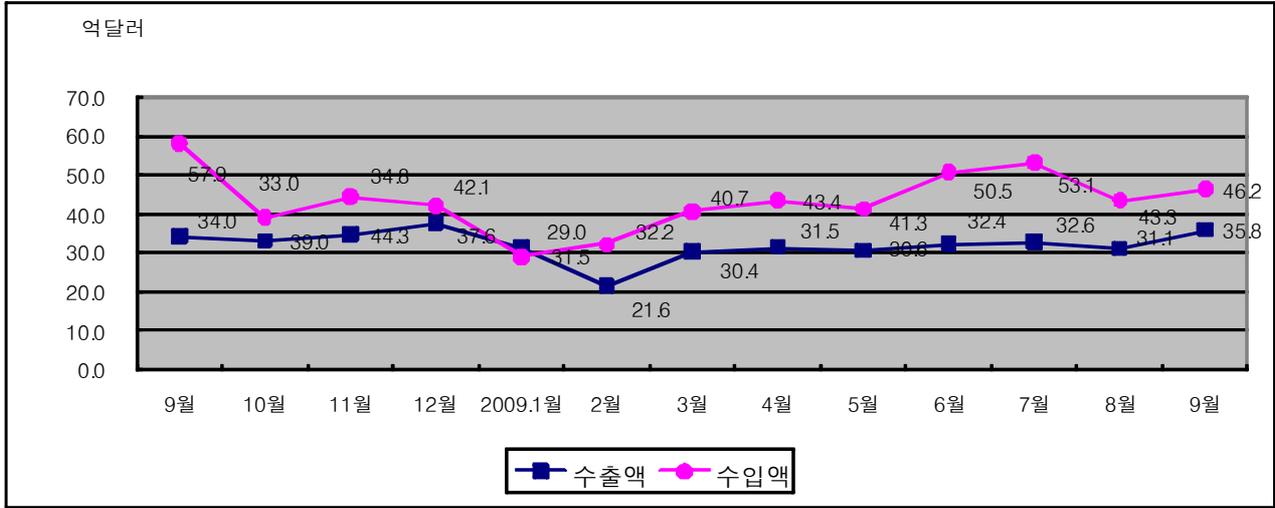
#### < 2009. 9월 중국 농산물 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구 분	9월 당월		9월 누계	
	금 액	전년동기대비(%)	금 액	전년동기대비(%)
◦ 수출액	35.8	15.2	277.5	-6.5
◦ 수입액	46.2	6.6	379.7	-17.1
◦ 무역수지		-	-91.8	-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 통계

< 중국의 월별 농산물 수출입 추이 >



나. 농산물 부류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품목부류	1~9월			품목부류	1~9월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산동물	6,147.0	9,954.3	61.9	동식물유지 등	867,240.8	567,435.9	-34.6
축산육류 및 잡육	102,974.2	51,858.9	-49.6	육류제품	476.6	217.8	-54.3
가금육 및 잡육	82,054.6	69,728.6	-15.0	수산물제품	5,071.5	3,873.6	-23.6
수, 해산물	271,740.8	250,943.0	-7.7	당류제품	36,060.8	39,290.5	9.0
유제품 난류 꿀 등	62,294.9	75,007.5	20.4	코코아, 그제품	24,178.3	15,829.4	-34.5
기타 동물산품	19,311.4	21,472.1	11.2	곡물 전분제품 등	49,986.3	74,970.4	50.0
산식물 및 화훼	7,093.2	6,531.6	-7.9	채소,과실 견과제품	23,091.5	25,351.6	9.8
식용채소	48,367.7	74,042.9	53.1	기타식품	33,124.7	35,037.0	5.8
식용과실 및 견과	93,955.4	130,447.9	38.8	음료, 술 및 식초	81,703.4	72,264.1	-11.6
커피 차 조미향료	7,526.1	6,075.5	-19.3	식품공업 잔류물	155,642.9	146,239.7	-6.0
곡 물	56,698.2	61,354.9	8.2	연초 및 그제품	38,884.9	40,903.4	5.2
제분공업제품	17,465.8	20,892.5	19.6	기타농산물	634,683.4	406,723.3	-35.9
유료, 볏짚 사료 등	1,839,985.8	1,575,170.5	-14.4	가금류제품	91,909.3	77,917.7	-15.2
식물액 즙	8,326.8	8,871.3	6.5	축산제품	482,160.5	366,318.8	-24.0
편직용 식물재료	6,336.9	6,793.5	7.2	-	-	-	-

다. 농산물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국가별	1~9월			국가별	1~9월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 아시아	<b>1,029,675.5</b>	<b>788,730.6</b>	<b>-23.4</b>	○ 남 미	<b>1,558,600.4</b>	<b>1,189,528.7</b>	<b>-23.7</b>
- 인도네시아	226,984.5	172,855.0	-23.8	-아르헨티나	619,991.2	277,242.4	-55.3
- 일 본	25,943.0	25,933.4	0	- 브라질	742,176.2	714,671.5	-3.7
- 말레이시아	340,809.6	210,442.8	-38.3	○ 대양주	<b>302,574.3</b>	<b>275,705.3</b>	<b>-8.9</b>
- 한 국	23,010.6	20,196.7	-12.2	- 호 주	226,297.7	174,418.7	-22.9
- 태 국	95,735.3	120,691.1	26.1	- 뉴질랜드	74,362.3	99,462.4	33.8
○ 북 미	<b>1,209,175.7</b>	<b>1,106,109.8</b>	<b>-8.5</b>	○ 유 럽	<b>400,804.1</b>	<b>348,566.2</b>	<b>-13.0</b>
- 캐나다	129,081.8	196,414.0	52.2	- 프랑스	106,881.7	82,178.6	-23.1
- 미 국	1,078,215.9	906,807.3	-15.9	- 네덜란드	40,175.9	34,552.1	-14.0

라. 주요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입현황

□ 수출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8 1~9월	2009 1~9월	증감(%)
○ 차 잎	<b>52,743.3</b>	<b>53,325.1</b>	<b>1.1</b>
- 모 로 코	10,389.3	11,001.9	5.9
- 일 본	4,324.3	4,020.0	-7.0
- 미 국	3,250.6	2,861.8	-12.0
○ 쌀	<b>39,244.8</b>	<b>38,812.3</b>	<b>-1.1</b>
- 한 국	8,078.5	13,687.5	69.4
- 일 본	2,551.6	6,356.2	149.1
- 남 아 공	438.4	3,038.0	593.0
○ 마 늘	<b>62,148.9</b>	<b>74,744.4</b>	<b>20.3</b>
- 인도네시아	13,046.8	14,619.4	12.1
- 미 국	7,512.8	7,600.9	1.2
- 브라질	3,665.2	6,093.5	66.3
○ 감귤속 과실	<b>22,898.1</b>	<b>32,325.6</b>	<b>41.2</b>
- 말레이시아	4,951.5	5,168.0	4.4
- 인도네시아	4,917.5	8,718.0	77.3
- 베트남	3,810.5	5,925.7	55.5
○ 계육제품	<b>40,642.1</b>	<b>43,998.9</b>	<b>8.3</b>
- 일 본	35,127.4	38,607.4	9.9
- 한 국	2,164.5	972.8	-55.1
- 홍콩	2,922.6	3,099.0	6.0
○ 사 과	<b>46,869.5</b>	<b>44,955.4</b>	<b>-4.1</b>
- 러시아연방	9,048.8	7,189.8	-20.5
- 태 국	3,801.5	4,276.6	12.5
- 인도네시아	6,640.2	5,892.1	-11.3
○ 중 약 제	<b>32,508.0</b>	<b>32,246.0</b>	<b>-0.8</b>
- 홍콩	8,152.4	7,805.1	-4.3
- 베트남	4,711.0	5,794.4	23.0
- 일 본	6,491.1	6,929.9	6.8

□ 수입동향

(단위 : 만불)

구 분	2008 1~9월	2009 1~9월	증감(%)
○ 과실 및 견과	<b>87,483.8</b>	<b>124,619.4</b>	<b>42.4</b>
- 태 국	25,352.9	40,808.5	61.0
- 베 트 남	15,358.4	22,426.3	46.0
- 미 국	11,962.1	19,226.9	60.7
○ 당 류	<b>28,287.5</b>	<b>32,575.4</b>	<b>15.2</b>
- 브 라 질	16.1	4,816.6	29,753.4
- 쿠 바	17,733.5	15,404.8	-13.1
- 태 국	1,393.2	4,415.7	216.9
○ 대 두	<b>1,747,345.7</b>	<b>1,406,994.6</b>	<b>-19.5</b>
- 미 국	613,644.3	557,393.9	-9.2
- 브 라 질	656,375.6	664,903.8	1.3
- 아르헨티나	449,094.2	150,181.2	-66.6
○ 면 화	<b>294,480.9</b>	<b>141,749.4</b>	<b>-51.9</b>
- 미 국	127,743.8	71,992.7	-43.6
- 인 도	90,793.7	17,174.8	-81.1
- 우즈베키스탄	27,041.0	15,945.7	-41.0
○ 올리브유	<b>400,494.8</b>	<b>258,127.3</b>	<b>-35.5</b>
- 말레이시아	272,772.6	161,961.6	-40.6
- 인도네시아	123,702.0	96,159.4	-22.3
- 일 본	14.6	3.9	-73.2
○ 옥 수 수	<b>612.4</b>	<b>787.3</b>	<b>28.6</b>
- 독 일	65.1	105.2	61.7
- 미 국	277.6	386.9	39.4
- 라 오 스	17.5	178.3	918.9

## 마. 한국산 수입동향

### (1)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품목	중국 총수입액		한국산 수입액		기타국별 수입액('09.09누계)		
	'08.09누계	'09.09누계	'08.09누계	'09.09누계			
차당	70,067	45,653	32,713	35,076	태국 (4,679)	호주 (1,520)	미얀마르 (994)
채소종자	50,178	51,033	1,157	1,684	태국 (4,485)	칠레 (3,393)	일본 (16,224)
기타베이커리제품	41,958	54,309	8,225	10,183	대만 (5,383)	인도네시아 (2,152)	홍콩 (32,563)
라면	5,084	6,259	22,518	23,165	홍콩 (1,731)	일본 (1,212)	대만 (807)
맥주	29,758	36,885	2,638	2,173	멕시코 (7,055)	독일 (14,196)	대만 (2,660)
유아용조제분유	271,512	443,547	1,770	2,697	싱가폴 (235,107)	아일랜드 (23,561)	뉴질랜드 (112,201)
생우유	8,170	14,044	84	1,153	뉴질랜드 (7,692)	프랑스 (2,482)	호주 (999)
소주	13,128	9,507	6,049	3,674	대만 (1,408)	일본 (3,361)	멕시코 (854)
간장	6,557	7,816	1,405	1,225	일본 (5,200)	대만 (942)	싱가폴 (710)
팽이버섯	343	3,184	1,007	6,858	대만 (536)	-	-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해관에 타 H.S 코드로 신고하여 한국수출 실적보다 적음

## (2)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 품목별 증감사유 분석 및 전망

- 자 당 : (2008.9) 32,713천불 → (2009.9) 35,076천불 (7.2%증가)
  - '09년 9월까지 중국의 자당 수입액은 45,653천불이며, 이중 한국산 수입액이 76.8%인 35,076천불로 중국의 최대 공급 국가로 자리 잡고 있음.
  - 올해 9월까지 수입액은 35,076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7.2%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채소종자 : (2008.9) 1,157천불 → (2009.9) 1,684천불 (45.5%증가)
  - 한국산 채소종자는 무, 배추, 고추 등으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수입되어 현지에서 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급 품종의 한국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9월까지 수입액은 1,684천불로 지난해 대비 45.5% 대폭 증가함.
- 기타 베이커리제품 : (2008.9) 8,225천불 → (2009.9) 10,183천불(23.8%증가)
  - 한국산 비스킷 등 기타 베이커리제품의 수입액은 2009년 9월까지 10,183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3.8% 대폭 증가하였음.
  - 한국산 과자류는 과거 한국 교민 대상으로 한국식품 전문점에서 판매되었으나 최근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지속적인 판촉으로 중국 현지인들의 소비가 늘고 있어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라 면 : (2008.9) 22,518천불 → (2009.9) 23,165천불 (2.9%증가)

- 라면 소비대국인 중국은 향후에도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이나 대부분 저가 라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 직수입 라면은 교민 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브랜드 라면이 수입산과 가격 차이를 두고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수입라면의 대형매장 진입은 다소 어려움.
- 맥 주 : (2008.9) 2,638천불 → (2009.9) 2,173천불 (17.6%감소)
- 한국산 맥주는 중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로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우며 중국산과 한국산의 맛 차이와 고가 등으로 현지인의 소비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주로 한국식당 및 술집 등 요식업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17.6% 감소한 2,173천불이 수입되었음
- 유아용조제분유 : (2008.9)1,770천불 →(2009.9)2,697천불 (52.4%증가)
- 중국의 유아제품 소비 잠재력은 아주 크며 특히 자국산 분유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한국산 분유는 현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생우유 : (2009.9) 84천불 → (2009.9) 1,153천불 (1,269.3%증가)
- 멜라민 우유사건 이후 교민교포시장의 한국우유 소비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여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소 주 : (2008.9) 6,049천불 → (2009.9) 3,674천불 (39.3%감소)

- 중국인들의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주류의 대표주로서 소주를 선호하고 있어 증가추세 전망.
  -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과 조선족이 주요 고객으로 최근 한화 하락에 따른 교민교포시장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대비 39.3% 대폭 감소
- 간 장 : (2008.9) 1,405천불 → (2009.9) 1,225천불 (12.8% 감소)
- 중국산에 입맛 들여진 현지인은 대부분이 가격이 싼 중국산을 선호하며 수입품으로는 일본산이 강세이며 한국산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나 저가 중국산과 고가 일본산 사이에서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움.
- 팡이버섯 : (2008.9) 1,007천불 → (2009.9) 6,858천불 (580.7% 증가)
-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유통기간이 길어 외식체인(휘귀 등)으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4. 경제브리핑

##### □ 중국 9월까지 수출입총액 15,578.2억달러, 전년대비 20.9% 감소

2009년 9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5,578.2억달러로 전년대비 20.9% 감소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8,466.5억달러로 21.3%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7,111.8달러로 20.4% 감소하여 1,354.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 <2009. 9월 중국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9월 당월		9월 누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 수출입총액	2,189.4	-10.1	15,578.2	-20.9
수 출 액	1,159.4	-15.2	8,466.5	-21.3
수 입 액	1,030.1	-3.5	7,111.8	-20.4
□ 무역수지	129.3		1,354.7	

## □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했다. 그 중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0.7% 하락하고 농촌 소비자물가지수가 0.1% 하락하였다.

8대류 상품가격 중 3대류 가격이 상승하고 5대류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중 식품가격이 1.6% 상승하였고 담배, 술 및 관련 제품 가격이 1.3% 상승하였으며 의료와 보건 및 개인용품류 가격이 1.2% 상승하였다.

의복류 가격은 동기대비 1.6% 하락하고 가정용 설비용품 및 가공정비서비스 가격은 1.2% 하락하였으며 교통과 통신류 가격은 2.7%,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류 가격은 0.7%, 주거비용은 3.8% 하락하였다.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지수는 1.1% 하락하였다.

## □ 중국, 경기회복에 10월 재정수입 28% 급증

중국의 재정수입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다. 10월 재정수입은 6천844억위안으로 작년 동월대비 28.4%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3천803억위안으로 37% 지방정부 재정수입은 3천41억위안으로 19.2% 각각 증가했다.

1-10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5조8천363억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3조1천330억위안으로 4.9%, 지방 재정수입은 2조7천33억위안으로 10.8% 각각 늘었다.

한편 재정지출은 10월 정부투자 확대와 소비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4천683억위안을 기록, 작년 동월보다 13% 늘었다. 이중 중앙정부 지출은 973억위안으로 8.7%, 지방정부 지출은 3천710억위안으로 14.2% 각각 확대되었다.

1-10월 재정지출은 4조9천886억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23% 증가했으며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1조601억위안과 3조9천284억위안으로 각각 21.2%, 23.4% 늘었다. 부문별로는 농업이 작년 동기보다 47.5% 급증했으며 의료위생은 26.8%, 교통운송은 70.7% 각각 증가했다.

#### □ 중국, 수출입규모 하락폭 20% 이내 감소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출입규모의 감소폭이 20%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1-9월중 중국의 수출입규모가 1조5,57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9% 감소하였다. 2004-2008년 사이에 중국의 연간 수출입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35.7%, 23.2%, 23.8%, 23.6%, 17.8%에 달하였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지난 해 4/4분기 수출기초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교역액의 감소 폭이 줄어들어 소폭 회복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단시일 내에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없어 외부수요가 여전히 대폭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전망하였다.

해외시장동향	중      국	상하이 aT
--------	----------	--------

(현지 시장 포커스)

## 1. 2009년 1~9월 중국 농산품 수출입 현황

- 9월말 현재 중국 농산품 수출입 총액은 662.7억불로 동기대비 1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출액은 280.1억불로 동기대비 6.4% 감소, 수입액은 382.6억불로 동기대비 10.6%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102.5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대비 36.5%가 하락한 것이다.
- 또한 9월 당월의 농산품 수출입 총액은 82.6억불로 동기대비 10.6%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수출액은 동기대비 5.8%가 증가한 36.2억불로 나타난 반면, 수입액은 46.4억불, 20.2%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대비 5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곡물 수출 수량은 감소, 수입은 증가

- 곡물수출은 96.6만 톤에 금액은 5.3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37.4%, 15.1%가 감소하였다.
- 곡물수입은 225.1만톤에 금액은 6.3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82.7%, 6.2%가 증가하였으며 무역적자는 1.0억불에 달한다. 반면 전년 동기의 무역적자는 0.4억불에 그쳤다.
  - 쌀, 옥수수 : 쌀 수출은 56.1만톤에 동기대비 31.1%가 감소하였으며 옥수수 수출은 8.6만톤에 동기대비 48.3%가 감소하였다
  - 밀, 보 리 : 전년에 수입한 적이 없는 밀의 경우 수입량은 58.5만 톤에 달했으며, 보리의 수입은 140.7만 톤으로 동기대비 50.8%가 증가하였다.

## □ 면화수입량 40%감소, 식당(食糖)수량 40% 증가

- 9월 현재 면화 수입은 112.4만 톤으로 동기대비 38.7%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동기대비 51.6%가 감소한 14.4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출은 8,311.5만 톤에 동기대비 45.5%가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1,776.6만불로 동기대비 39.3%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14.2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1.7%가 감소한 것이다.
- 식당의 수입은 95.3만톤으로 동기대비 36.3%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3.3억 불에 달해 동기대비 1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량은 4.9만 톤에 동기대비 17.5%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동기대비 29.7%가 증가한 2,466.8만 불로 3.1억불의 무역적자를 보았으며 이는 동기대비 14.1%가 증가한 것이다.

## □ 식용유지 및 식용유 수입량 20%증가

- 9월 말 현재 식용유지 수입량은 3,519.1만톤에 동기 대비 18.8%가 증가한 반면 금액은 동기대비 14.7%가 감소한 155억 불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은 85.7만 톤, 4.8억불로 동기대비 7.6%, 25.4%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146.6억 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1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두 수입량은 3,236.3만 톤, 유지수입량은 245.2만 톤으로 동기대비 12.8%, 24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용유 수입량은 712만톤에 동기대비 17.6%가 증가하는 반면 금액은 48.9억불로 동기대비 31.0%가 감소하였으며 수출량은 7.1만톤, 금액9,872.7만불로 동기대비 62.5%, 69.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는 47.9억 불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9.2%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 대두유 수입량은 175.1만 톤에 동기대비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려유 수입량은 483.3만톤에 달해 동기대비 2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채소 수출량 감소, 과일 수입량은 성장세

- 9월 말 현재 채소 수출량은 588.6만톤에 동기대비 2.2%가 감소하는 반면

수출액은 46.9억불로 동기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량 6.4만톤에 금액0.7억불로 동기대비 20.2%, 17.1%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동기대비 1.7%가 증가한 46.2억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과일 수출은 354.1만톤에 26.2억 달러로 동기대비 5.7%, 15.2%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2.6만 톤에 13.1억달러로 동기대비 35.7%, 39.2%가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13.1억불에 달했으나 이는 동기대비 38.9%가 감소한 것이다.

#### □ 축산물 적자 감소, 수산물 무역순차 증가

- 9월 말 현재 축산물 수입액은 47억불, 수출액28.3억불로 각각 동기대비21.1%, 13.5%가 감소하여 무역적자는 18.6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30.4%가 감소한 것이다
- 수산물의 수출액은 75.1억불, 수입액39.2억불로 동기대비 1.4%, 5.8%가 감소하여 무역순차는 35.9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3.8%가 증가한 것이다.

자료 : 食品産業网, 2009. 11. 5

## 2. 중국 당업협회, 식품공업 경영 상황 분석 및 전망

-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내수확대, 성장세유지, 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 중국 식품공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발전을 유지하여 2009년 공업 총 생산액이 4.3~4.6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17~2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가. 2009년 식품공업 경영 회고

-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중국 경제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거시 경제에 상응하는 정책의 실시로 식품공업은 성장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내수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식품공업은 중국 국내 총 생산액의 1.52%에 달했다.

- 식품공업 총 생산액은 '07년 대비 31%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익도 '07년 대비 30%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입 및 수출은 '07년 대비 각각 24%,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멜라민 사건"을 통해 중국산 상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 이 외에 2008년은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감원도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개인 소득 감소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2009년 1/4분기 CPI가 최저치에 달하기도 했다.

## 나. 2009년 전국 식품공업 경영현황

### □ 국내 현황

-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로 중국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최악의 단계를 벗어나 2009년 8월말 현재 농산품 생산액은 GDP 1.7조 위안에 달했으며 동기대비 15.4%가 증가하였다. 또한 식품산업은 5,632.9억 위안의 GDP를 창출하면서 동기대비 1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음료산업은 GDP 4,758.1억 위안에, 염업(鹽業)GDP는 16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7.1%,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국 교통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광시(廣西)지역의 식당 및 푸젠(福建)지역의 통조림, 과일 등 식품산업의 발전이 신속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방지역의 식당기술, 파종형태의 변화에 따라 더욱 큰 발전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 국제시장 현황

- 일부 국가의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 2009년 가공식품의 가격을 보면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09년 소비규모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빈곤에서 “쇼

우강”에 이르기 까지 빈곤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서 향후 소비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력이 높은 지역으로는 장쑤(江蘇), 광둥(廣東), 허베이(河北), 쓰촨(四川), 산둥(山東) 등이 있다.

\* 인구밀도 및 가처분소득과 관계없음

- 2009년 식품공업 GDP는 4.9조 위안에 전년 동기대비 17% 정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다. 2010년 식품공업 전망

- 국제무역 환경의 저하가 중국무역에 주는 영향은 있으나 현재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외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영향은 잔존할 것을 보인다. 2009년을 돌이켜보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무역규제 조치가 40여종이나 되며 2010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과 수입비율 확대
- 기본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약간의 조정은 있음
- 재정 및 화폐정책
- 가격의 하락은 전환점을 보일 것이며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이 있음

#### 라. 결론

- 2009년 식품공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GDP는 4.9억에 동기대비 1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에는 6조 위안에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食品伙伴网, 11. 06

### 3. 상하이 경제동향

- 2009년 1~9월 상하이의 수출입총액은 4,8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9% 감소하였음.
- 이 중 수출액은 2,898.8억 달러로 동기대비 21.7%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937.3억 달러로 동기대비 19.6% 감소하였으며 96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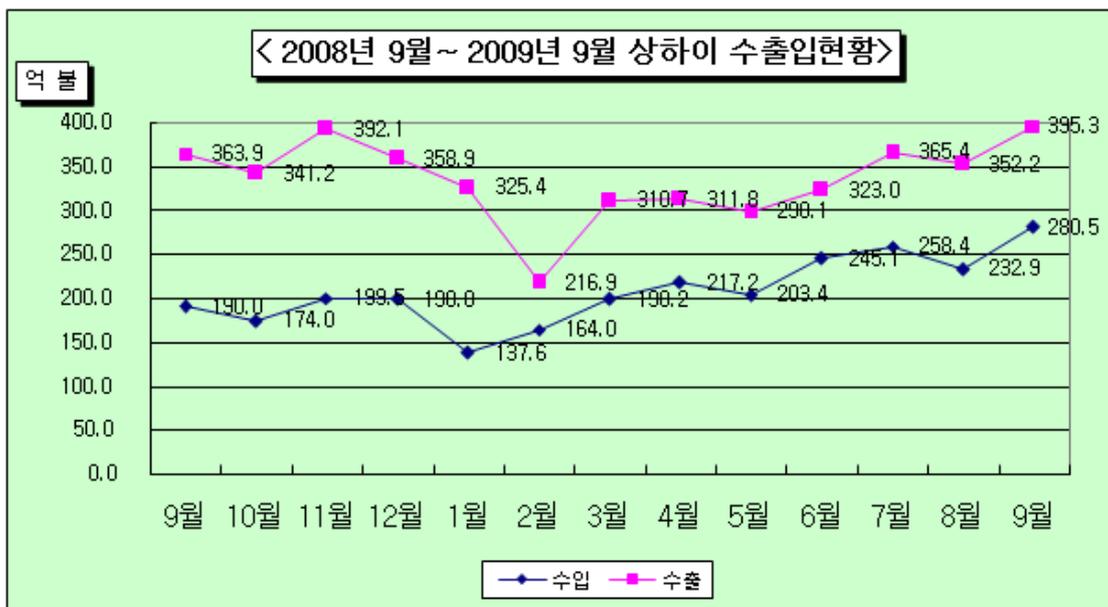
<2009년 9월 상하이 수출입현황>

(단위 : 억US\$)

구 분	'09. 9월		9월 누계	
	금 액	증감(%)	금 액	증감(%)
○ 수출입총액	675.8	22.0	4,836.1	△20.9
- 수출액	395.3	8.6	2,898.8	△21.7
- 수입액	280.5	47.6	1,937.3	△19.6
무역수지	114.8	-	961.5	-

자료 > 상하이

세관통계(<http://shanghai.customs.gov.cn/publish/portal27/tab8424/>)



해외시장동향	미            국	뉴욕 aT
--------	----------------	-------

## 1. 현장 시장 포커스

### □ 미국 차(TEA)시장동향

미국의 차 시장-민텔인터내셔널이 정의한 Ready to drink(바로마시는차:RTD)로 실온보관 혹은 냉장보관차; 티백차/루즈티; 인스턴트 아이스티 믹스-은 지난해 식품, 의약품, 잡화와 편의점에서 총 매출이 43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은 2003년 이후로 73%가 성장한 것으로 점점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들이 마시기에 편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늘어나면서 항산화제 혹은 저칼로리, 저당도, 무탄산음료에 이르는 가능성과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의 차시장은 바로마시는차(이후:RTD)로 실온 및 냉장보관차류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120억 달러, 3억2백만 달러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RTD차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0대층에서도 즐겨 마시고 있어 소비는 45%에서 51%로 늘어났다. 그러나 역시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2008년 판매는 1.3%감소한 반면 티백차 혹은 루즈티의 소비는 오히려 1.8%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끓여서 마시는 인구가 증가한 한 것이다.

### ○ 소비동향

RTD차와 달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끓여마시는 핫티나 아이스티의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5~64세로 나타났으며 캔RTD차와 병RTD차를 선호하는 연령은 18~34세의 특히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티백제품의 경우, 미국 가정의 98%가 사용하는 반면 루즈티(loose tea:티백포장이 안된것)는 전체가정의 1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 가정 중 8가정이 일반차 즉 카페인이 들어 있는 차를 마시는 반면 나머지 2가정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이 즐겨하는 차종류

	비율 %
녹차	23
홍차	17
레몬차	13
과일차	5
캐모마일차	3
차이차	3
민트차	3
와이트차	2
생강차	1
바닐라차	1
아몬드차	1
아프리카홍차 혹은 루이보스차	0
그 외	5

자료: Min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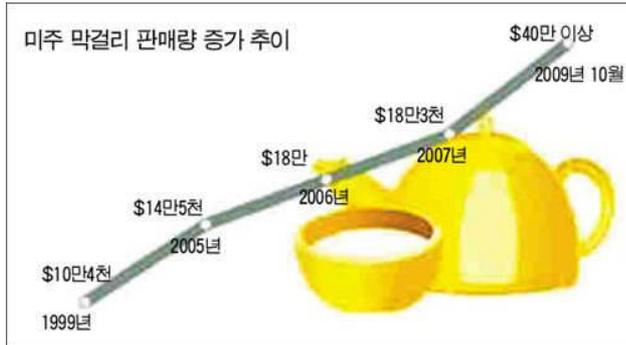
차를 마시는 18세 이상의 인터넷사용자 1635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로 2009년 2월 실시

○ 최근 동향

가장 트렌디한 차는 최근 유기농, 천연, 항산화제를 함유한 특히 아사이, 석류, 열매리와 같은 슈퍼과일이 들어있는 차로 드러났다. 특히, 2008년에 출시된 새로운 차들은 유기농, 천연 그리고 다른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내놓았다. 2008년에는 약100개의 프리미엄차들이 소개되었으며 국가 그리고/혹은 지방별로 특산품을 내세운 점이 독특하다. 이 외에도 2008년에는 562개의 신제품이 소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티백제품이다.

## □ 한국 막걸리 없어서 못판다

막걸리 수입 및 유통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와 비교해도 최근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막걸리 열풍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막걸리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한국 내수용과 일본 수출물량만으로도 벅차다는 설명. 현재 한인 대형마켓들에 나와 있는 막걸리는 가디나에서 생산되는 고려양조 생막걸리 캐나다에서 공수해 오는 서울라이스 와인 장터 생막걸리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 국순당 쌀막걸리 서울탁주 장수막걸리 이동주조 이동막걸리 등이 있다.

서울장수(SJ) 막걸리의 이일우 미주서부사장은 "막걸리를 들여오자마자 2주도 채 되지 않아 떨어진다"며 "공급에 차질을 빚어 배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동막걸리는 한달에 3컨테이너(1개 1만2000병 분량)를 수입하는데 12월 주문 물량은 4~5컨테이너에 이른다.

국순당은 기존 쌀막걸리에서 생막걸리로 제품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냉장 및 냉동 창고를 몬테벨로에 마련했다. 백세주USA의 최정관 지사장은 "빠르면 이달 안에 출시된다"며 "효모가 살아있는 진짜 막걸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주조는 현재 검은콩·동동주·쌀·조깍데기·팍 5종에 신제품을 추가 보리 막걸리를 12월 시판할 예정이다. 포천일동주조도 새롭게 가세하며 매실과 복분자를 미주에 선보인다.

막걸리를 만날 수 있는 식당과 술집도 다양해졌다. 실제 장수막걸리와 이동막걸리가 납품하는 식당 및 술집은 100곳이 넘는다. 주류 유통업체인 우리술의 강현수 사장은 "전에는 10곳 중 1곳에서만 막걸리를 취급했다면 지금은 4~5곳으로 늘어났다"며 "막걸리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막걸리를 받으려는 요식업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층과 타인종은 칵테일 막걸리를 선호하면서 메뉴 개발을 통해 컨셉도 확대되고 있다. 아랑 등이 요구르트 인삼 등을 가미한 칵테일 막걸리를 소개한데 이어 최근에는 딸기 블루베리 생강 키위 파인애플 등을 넣어 소주 칵테일 못지 않은 종류를 자랑한다. 막걸리 사랑이 뜨거운 일본계 시장을 비롯해 타인종 및 주류로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도 활발하다. 내년 1월 포모나에서 열리는 중국계 푸드 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인 서울장수 이일우 지사장은 "일본계 마켓 미츠와와 일식당 등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확대를 자제하고 있다"며 "충북 진천 공장이 완공되는 내년 4월쯤에는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이후 타인종 및 주류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 현장시장 동향

### □ 대형유통업체 크로거(Kroger) 샐러드에도 이력추적시스템도입

대형유통업체 크로거가 새로운 이력추적시스템을 자체브랜드 FRESH SELECTION의 신선샐러드제품에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샐러드가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지 알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Redwood City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 Harvest Mark Traceability Program이라고 부른다.

Fresh Selection의 각 백에는 16개의 번호가 있어 [www.harvestmark.com](http://www.harvestmark.com)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생산지, 포장지, 내용품, 생산일자와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피트백이 가능하다.

크로거사에 따르면 현재 Harvest Mark 기술을 이용해 샐러드를 생산하는 회사는 미국내 크로거밖에는 없다고 자신했으며 2년 전 소비자들에게 제품리콜을 위해 HarvestMark사를 통한 이력시스템을 도입해 인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 □ 미국 작물가 7.7%상승

작물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10우러 전국적인 비로 인해 수확시즌이 연기되면서 가격은 8%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농장주들은 지난해 동기 세계

적인 식량부족사태로 곡물가격이 상승한데 비하면 곡물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농무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옥수수, 밀, 우유가격은 상승했다.

옥수수가격은 부셸당 \$3.54로 29센트, 밀가격은 부셸당 \$4.56으로 8센트, 대두는 부셸당 \$9.74로 1센트가 하락했다. 유제품의 도매가격은 10월 7.1%상승, 갠런당 \$1.19로 인상됐다. 이 상승률은 지난해 큰 하락율을 나타냈던 유제품가격에 비해 많이 상승한 수치이나 2008년 10월에 비해서 아직도 22%낮은 수준이다.

시카고 AgResource Co.의 선물시장을 분석하는 그렉 와그너씨에 따르면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곡물들의 수확이 늦춰져 역사상 최악의 수확이 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 □ 미국 FDA 카페인성분함유된 주류판매 제재

미FDA 최근 안전성 여부로 불거지기 시작한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알코올 음료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음료는 맥주나 다른 술을 카페인과 과일주스와 혼합한 것이며 알콜도수가 10%에 이른다. 이러한 음료는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사고, 음주운전, 성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는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성분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취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며, 종종 취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짓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력에 의해 밀러와 앤호이저-부시는 작년 자신들의 맥주제품에서 카페인을 제거하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유나이티드 브랜드(United Brands)의 '주스'(Joose) 이며 여전히 트위터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미국 식용 식물을 재배하는 녹색벽(green wall)의 상업화 진전

녹색지붕에 이어 녹색벽(green wall)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녹색벽은 도심 건물의 좁은공간의 벽을 활용하여 과일, 채소, 허브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며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벽(edible wall)이라고도 불린다. 이 녹색벽은 수직 농장(vertical farm)과 달리 대단한 기술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게다가 창고, 식당, 사무실 등등 어디서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녹색벽을 상업화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업들의 매출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 □ 뉴욕 일원에서 '빵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18일 한국의 대형 식품사 CJ푸드빌 계열인 제과점 '뜨레쥬르'가 포트리 H마트에 입점하면서 기존 업체들과 본격적인 시장 쟁탈전에 들어간 것. 뚜레쥬르의 시장 진입으로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파리바게뜨와 다른 중소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으로 업체간 피말리는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커져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계열 제과점의 잇따른 뉴욕 시장 진출로 기존 고객들의 이탈 현상을 두려운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 '공룡'들의 진출=이번 뚜레쥬르의 뉴욕 진출을 두고 업계에서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공룡의 입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뚜레쥬르는 현재까지 미주 지역에 13개점을 주로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프랜차이즈(가맹점)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연이어 문을 연 보스톤과 포트리의 H마트에 입점한 점포들은 모두 프랜차이즈다. 포트리점 알렉스 김 대표는 "내년 중 플러싱과 에디슨 H마트에도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새로운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 일원에서 운영되는 크고 작은 제과점은 대략 40여곳. 파리바게뜨가 지난해 뉴욕 일원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몇몇 업체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각 타운별로 중소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신라제과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빵집들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빵을 선보여 왔다.

- 정면대결 피하고 탐색전부터=이번 뚜레쥬르의 뉴욕 진출에 기존 대규모 제과업체들은 외형적으로는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 동북부 지역에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뚜레쥬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정아 마케팅 디렉터는 “뚜레쥬르 개점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뚜레쥬르 배후에 CJ라는 거대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빵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판 ‘삼립식품’이 있다. 기원(Heart)부터 다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응해 파리바게뜨는 곧 플래싱 노던블러바드점을 오픈할 예정. 또 매장 인테리어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는 등 상당히 신경을 쓰는 기색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내부에서는 프랑스풍의 고급 제품들로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뚜레쥬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뚜레쥬르 측도 애써 파리바게뜨와의 정면대결은 피해가려는 분위기다. 포트리 뚜레쥬르 정형모 매니저는 “양사 제품의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면에서 뚜레쥬르가 조금 낮다”며 “고급 제품들도 많지만 한국의 ‘빵집’을 연상시키는 정감 있는 제품들이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 군소업체들 걱정만 ‘태산’=대형업체들의 정면승부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다른 중소 제과점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하면 중소기업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상황이 밀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17년째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 신라제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재 사장은 “오랫동안 어렵게 터를 닦아냈는데 한국식 제품에 대한 시장 검증이 끝났다고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한인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같은 영세업체가 애써 키운 시장을 대기업들이 거저 집어먹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 소비자들은 즐거운 비명=파리바게뜨에 이어 뚜레쥬르까지 뉴욕 일원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 포트리에 거주하는 김영선(32)씨는 “한국에서 즐기던 빵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 “딱딱한 미국 빵에 비해 한국 빵 품질이 아무래도 더 좋기 때문”이라고 기뻐했다.

### 3. 미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 2009년 9월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현황

(단위: 천불)

구 분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 액	금 액	전년 동기대비(%)
○ 수출액	66,815,835	92,306,591	38.15
○ 수입액	71,872,982	60,946,532	-15.20
□ 무역수지	-50,571,147	31,360,059	

자료: FAS. USDA

#### □ 주요 국가별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불)

		1	2	3	4	5
국가	미국 전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칠레	브라질
총수입액	60,946,532	14,541,158	8,836,109	38,389,984	2,169,449	2,213,880
전년 동기대비(%)	-15.20	-23.64	3.95	-16.32	-6.25	-12.70

자료: BICO USDA

#### < 미국 수입 동향 분석(2009. 9월 말 기준) >

- 2009. 9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수입액은 60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
  - 담배는 9.59%, 당류12.06% 상승 : 설탕값 상승으로 인해 수입금액 상승
  - 쌀은 -0.42% 소폭하락, 전달에 비해 상승 사료용 곡물 -39.27%하락
  - 신선과일은 6.8%상승, 신선채소는 -6.53% 하락, 주스류는 -31.43%하락,
  - 가공 과일 및 야채는 -5.33% 하락, 스낵류는 -5.16% 하락
  - 식물성 기름(열대성 유지제외) -27.9%감소, 종자류 0.94% 상승

- 주요 증가품목은 1차 코코아, 담배, 사탕수수, 사탕무 중간소비재는 당류 직접소비재는 신선과일, 인스턴트커피, 바나나로 달러화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분석됨.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제품군은 1차 농산물로 고무류, 사료, 밀 등으로 -20.99%의 하락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중간소비재인 산동물, 열대유지, 식물성유지, 코코아페이스트로 -17.86%, 직접소비재는 주스류, 유제품, 치즈, 향신료, 견과류, 종묘, 주류, 신선야채 등 -6.89%의 하락율을 보였음.

**< 미국 수출동향 분석(2009. 9월말 기준) >**

- 2009년 9월까지 미국 농림축산물 총 수출액은 7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9% 하락함.
- 1차 농산물인 대두, 벌크농산물, 사료용곡물, 밀, 면, 중간소비재인 대두박, 대두유, 동물성유지, 당류, 밀가루 그리고 최종소비재인 유제품, 청과, 견과류, 주류, 원예작물이 감소, 전년 동기에 비해 쌀을 제외한 모든 수출이 감소함.
- 1차 농산물은 -33.06% 감소, 중간소비재는 -16.61% 감소, 최종소비재는 -9.33%로 각각 감소했으나 지난달에 비해선 점차 완화되고 있음.

**□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천불)

2008년 9월		2009년 9월	
금액	전년 동기대비	금액	전년 동기대비
164,245	10.1%	171,399	-5.2%

자료: FAS. USDA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9. 9월말 기준) >

- 한국산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17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80백만 달러 대비 -5.2% 감소
  - 벌크농산물은 전년도 429만 달러에서 278만 달러로 -35.12%감소
  - 중간재농산물은 전년도 1,588만 달러에서 1,501만 달러로 -5.45%감소
  - 소비재 농산물은 전년도 156백만 달러에서 150백만 달러로 -3.9%감소
  - 임산물(펄프, 종이 제외)은 전년도 399만 달러에서 303만 달러로 -23.97% 하락
  
- 주요 증가품목은 쌀, 기타식물성유지, 가공과채류, 과일야채주스, 신선야채, 견과류, 주류로 증가함. 밤, 뿌리인삼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56.7%, 42.89%로 늘어남.
  
- 주요 감소품목은 벌크농산물, 차류, 당류, 유제품, 인스턴트 커피류, 스낵류 제품이 감소함.

<미국의 주요 부류별/ 주요 4대 국가별 수입동향('09년 9월) >

(단위: 천불)

품목	국가	'07 금액(천불)	'08 금액(천불)	8월		
				'08 금액(천불)	'09 금액(천불)	%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캐나다	225,076,557	24,862,378	19,303,685	14,541,158	-23.64
	멕시코	10,467,256	11,158,594	8,540,266	8,836,109	3.95
	중국	5,995,696	6,309,832	4,838,275	3,838,984	-16.32
	칠레	2,603,764	2,702,232	2,204,249	2,169,449	-6.25
	계	<b>244,143,273</b>	<b>45,033,036</b>	<b>34,886,475</b>	<b>29,385,700</b>	<b>-14.96</b>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캐나다	9,832,685	6,853,382	5,544,441	3,439,735	-37.96
	중국	3,079,675	2,855,687	2,165,967	1,703,314	-21.36
	브라질	1,153,238	812,890	653,566	411,168	-37.09
	칠레	766,787	653,618	501,352	380,287	-24.15
	계	<b>14,832,386</b>	<b>11,175,577</b>	<b>8,865,325</b>	<b>5,934,503</b>	<b>-33.06</b>
○ 벌크농산물전체	인도네시아	1,646,928	2,098,859	1,549,949	872,145	-43.73
	캐나다	1,589,402	2,824,077	2,243,752	1,431,768	-36.19
	브라질	999,614	1,076,401	803,164	874,184	8.84
	태국	771,324	1,025,380	800,431	487,706	-39.07
	계	<b>5,007,269</b>	<b>7,024,716</b>	<b>5,397,295</b>	<b>3665,803</b>	<b>-32.08</b>
- 사료용 곡물	캐나다	497,181	818,244	631,416	384,408	-39.12
	멕시코	23,839	10,909	8,332	7,206	-13.51
	핀란드	2,387	6,072	2,394	1,751	-26.86
	페루	1,177	891	527	992	88.24
	계	<b>524,584</b>	<b>836,116</b>	<b>642,669</b>	<b>394,357</b>	<b>-38.64</b>
- 쌀	태국	222,427	341,227	260,870	271,542	4.09
	인도	75,893	125,403	107,529	79,646	-25.93
	중국	44,089	24,570	24,059	3,905	-83.77
	파키스탄	15,432	30,464	25,223	16,257	-35.55
	계	<b>357,842</b>	<b>521,664</b>	<b>417,682</b>	<b>371,350</b>	<b>-11.09</b>
- 담배	브라질	284,140	304,062	283,903	285,195	0.46
	터키	175,968	127,989	95,401	136,945	43.55
	아르헨티나	51,260	45,808	41,755	20,984	-49.74
	말라위	39,243	22,263	11,451	41,066	258.62
	계	<b>550,611</b>	<b>500,122</b>	<b>432,511</b>	<b>484,189</b>	<b>11.95</b>
- 차(허브차포함)	중국	79,546	88,777	64,386	57,159	-11.22
	캐나다	73,068	79,000	61,989	78,593	26.79
	독일	44,821	51,514	40,122	37,039	-7.68
	인도	40,892	51,045	34,123	35,492	4.01
	계	<b>238,326</b>	<b>270,337</b>	<b>200,619</b>	<b>208,283</b>	<b>3.82</b>
○ 중간재축산물 전체	캐나다	4,552,888	5,674,650	4,383,332	3,171,261	-27.65
	아일랜드	1,977,833	2,028,836	1,552,244	1,374,728	-11.44
	말레이시아	939,115	1,605,319	1,176,981	896,268	-23.85
	멕시코	875,286	997,961	687,821	802,085	16.61
	계	<b>8,345,122</b>	<b>10,306,766</b>	<b>7,800,379</b>	<b>6,244,342</b>	<b>-19.95</b>
- 식물성기름 (열대성유지제외)	캐나다	757,828	1,482,619	1,130,116	747,538	-33.85
	이탈리아	607,327	656,048	488,274	385,307	-21.09
	스페인	174,026	230,467	173,659	134,878	-22.33
	아르헨티나	82,928	101,597	85,479	50,909	-40.44
	계	<b>1,622,108</b>	<b>2,470,732</b>	<b>1,877,527</b>	<b>131,832</b>	<b>-29.77</b>
- 종자류	캐나다	183,924	196,455	151,420	140,499	-7.21
	칠레	152,387	166,333	164,092	191,790	16.88
	네덜란드	64,175	61,276	44,581	52,080	16.82
	아르헨티나	57,074	93,965	93,334	70,855	-24.08
	계	<b>457,560</b>	<b>518,029</b>	<b>453,426</b>	<b>455,224</b>	<b>0.40</b>

(계속)

(단위:천불)

품목	국가	'07 금액(천불)	'08 금액(천불)	9월		
				'08 금액(천불)	'09 금액(천불)	% 전년대비
- 당류	캐나다	290,819	332,821	252,970	223,465	-11.66
	멕시코	150,369	395,575	285,476	374,493	31.18
	과테말라	51,211	79,264	44,101	52,396	18.81
	브라질	28,217	62,876	27,000	13,244	-50.95
	계	<b>520,616</b>	<b>870,535</b>	<b>609,547</b>	<b>663,598</b>	<b>8.87</b>
○ 소비제농축산물 전체	캐나다	9,101,581	9,510,269	7,132,160	6,498,395	-8.89
	멕시코	8,932,081	9,420,211	7,296,497	7,447,564	2.07
	호주	2,437,727	2,161,818	1,537,510	1,534,529	-0.19
	이탈리아	2,338,422	2,463,789	1,834,237	1,540,176	-16.03
	계	<b>22,809,811</b>	<b>23,556,087</b>	<b>17,800,403</b>	<b>17,020,664</b>	<b>-4.38</b>
- 스낵류 (초콜렛포함)	캐나다	2,377,531	2,473,829	1,852,052	1,691,921	-8.65
	멕시코	840,642	898,457	661,918	757,867	14.50
	독일	199,825	202,760	136,409	122,979	-9.85
	중국	176,929	185,595	126,426	116,828	-7.59
	계	<b>3,594,928</b>	<b>3,760,641</b>	<b>2,776,806</b>	<b>2,689,594</b>	<b>-3.14</b>
- 낙농제품 (치즈제외)	뉴질랜드	629,511	655,310	413,389	408,369	-1.21
	캐나다	154,717	106,308	87,725	65,821	-24.97
	호주	90,233	100,528	73,213	60,275	-17.67
	인도	88,154	108,940	84,939	22,920	-73.02
	계	<b>962,615</b>	<b>971,086</b>	<b>659,265</b>	<b>557,385</b>	<b>-15.45</b>
- 신선채소	멕시코	2,800,221	2,941,936	2,265,743	2,109,696	-6.89
	캐나다	830,310	925,197	735,064	676,426	-7.98
	페루	193,107	184,284	106,357	109,615	3.06
	중국	120,922	91,097	76,418	50,409	-34.04
	계	<b>3,944,561</b>	<b>4,142,514</b>	<b>3,183,582</b>	<b>2,946,146</b>	<b>-7.46</b>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멕시코	1,627,415	1,682,614	1,367,122	1,576,319	15.30
	칠레	1,155,712	1,245,289	1,063,410	1,073,451	0.94
	코스타리카	423,262	424,558	332,968	329,556	-1.02
	캐나다	137,186	150,591	93,033	81,112	-12.81
	계	<b>3,343,575</b>	<b>3,503,052</b>	<b>2,856,532</b>	<b>3,060,438</b>	<b>7.14</b>
- 과일채소가공품	캐나다	1,092,656	1,156,252	873,929	828,267	-5.22
	중국	718,098	813,457	627,388	561,858	-10.44
	멕시코	661,645	807,701	631,414	632,245	0.13
	태국	331,824	382,008	291,193	284,546	-2.28
	계	<b>2,804,224</b>	<b>3,159,418</b>	<b>2,423,924</b>	<b>2,306,916</b>	<b>-4.83</b>
- 주스류	중국	437,510	676,928	586,955	292,148	-50.23
	브라질	419,464	302,071	207,762	159,330	-23.31
	멕시코	190,459	206,963	170,540	130,420	-23.53
	아르헨티나	179,181	214,670	148,356	115,582	-22.09
	계	<b>1,226,615</b>	<b>1,400,631</b>	<b>1,113,612</b>	<b>697,480</b>	<b>-37.37</b>
- 견과류	베트남	222,688	277,418	209,581	188,267	-10.17
	인도	204,863	242,629	196,054	136,814	-30.22
	브라질	167,039	132,524	109,185	118,923	8.92
	멕시코	153,870	176,253	117,217	98,410	-16.04
	계	<b>748,459</b>	<b>828,824</b>	<b>632,037</b>	<b>542,414</b>	<b>-14.18</b>
- 주류 (와인과맥주)	멕시코	1,594,612	1,568,452	1,226,815	1,220,004	-0.56
	프랑스	1,436,541	1,418,084	1,034,215	650,732	-37.08
	이탈리아	1,303,648	1,334,556	996,088	856,070	-14.06
	네덜란드	1,045,442	1,056,269	829,159	747,998	-9.79
	계	<b>5,380,244</b>	<b>5,377,362</b>	<b>4,086,276</b>	<b>3,474,805</b>	<b>-14.96</b>

(계속)

(단위:천불)

품목	국가	'07	'08	9월		
		금액(천불)	금액(천불)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원예작물/절화	콜롬비아	519,262	515,643	411,879	404,965	-1.68
	캐나다	303,410	270,639	189,632	171,649	-9.48
	네덜란드	258,223	236,984	180,108	143,966	-20.07
	에콰도르	145,549	134,309	106,556	95,834	-10.06
	계	<b>1,226,444</b>	<b>1,157,575</b>	<b>888,174</b>	<b>816,414</b>	<b>-8.08</b>
- 커피(구운것/ 인스턴트)	캐나다	116,041	131,155	94,937	122,920	29.48
	멕시코	87,754	96,919	73,109	75,963	3.90
	브라질	83,026	104,254	78,594	67,805	-13.73
	이탈리아	42,132	44,093	31,527	26,996	-14.37
	계	<b>328,952</b>	<b>376,422</b>	<b>278,168</b>	<b>293,683</b>	<b>5.58</b>
- 향신료	인도	143,077	179,440	138,655	98,037	-29.29
	인도네시아	91,523	130,525	100,789	70,494	-30.06
	중국	64,470	86,794	65,525	58,296	-11.03
	캐나다	54,122	94,496	66,617	62,197	-6.63
	계	<b>353,191</b>	<b>491,255</b>	<b>371,586</b>	<b>289,025</b>	<b>-22.22</b>
- 인삼(뿌리)	중국	13,443	9,601	8,819	3,448	-60.90
	대만	569	697	1,269	2,252	77.46
	홍콩	4,209	2,756	2,222	3,871	74.21
	캐나다	1,807	1,896	1,701	1,215	-28.57
	계	<b>24,645</b>	<b>17,040</b>	<b>14,010</b>	<b>10,785</b>	<b>-23.02</b>
(- 배)	아르헨티나	54,041	36,205	36,205	38,060	5.12
	한국	23,862	21,581	9,786	9,209	-5.90
	칠레	19,929	22,164	22,164	18,955	-14.48
	중국	18,200	12,333	7,641	6,374	-16.58
	계	<b>116,032</b>	<b>92,283</b>	<b>75,797</b>	<b>72,598</b>	<b>-4.22</b>
(- 감귤(만다린))	스페인	100,524	87,936	17,785	21,025	18.22
	모로코	14,416	26,116	9,309	12,355	32.72
	남아공	6,161	6,005	5,707	6,316	10.67
	페루	11,766	8,640	8,133	10,894	33.95
	계	<b>129,685</b>	<b>126,403</b>	<b>40,934</b>	<b>50,589</b>	<b>23.59</b>
(- 포도(신선))	칠레	640,237	679,137	630,731	632,165	0.23
	멕시코	262,049	224,769	224,416	285,005	27.00
	브라질	33,922	38,663	1,678	1,044	-37.78
	페루	18,248	26,268	16,843	11,997	-28.77
	계	<b>954,455</b>	<b>968,837</b>	<b>873,668</b>	<b>930,212</b>	<b>6.47</b>
(- 딸기(신선))	멕시코	130,509	116,806	89,210	117,361	31.56
	캐나다	802	499	496	749	51.01
	중국	290	99	71	49	-30.99
	뉴질랜드	146	457	4	7	75.00
	계	<b>131,746</b>	<b>117,862</b>	<b>89,781</b>	<b>118,166</b>	<b>31.62</b>
(- 밤)	이탈리아	4,378	4,698	58	146	151.72
	중국	3,742	3,941	1,811	1,327	-26.73
	한국	1,467	957	321	824	156.70
	프랑스	144	140	62	74	19.35
	계	<b>9,731</b>	<b>9,735</b>	<b>2,252</b>	<b>2,372</b>	<b>5.33</b>

자료: USDA BICO Report

< 한국산 수입 동향 분석(2009. 9월말 기준) >

(단위: 천불)

품목	'07 금액(천불)	'08 금액(천불)	9월		
			'08	'09	%
			금액(천불)	금액(천불)	전년대비
□ 농림축산물	238,816	253,880	180,831	171,399	-5.21
○ 임산물전체 (펄프/종이제외)	5,741	5,068	3,992	3,035	-23.97
○ 벌크농산물전체	6,602	5,851	4,297	2,788	-35.12
- 사료용 곡물	17	22	9	31	244.44
- 쌀	876	380	321	667	107.79
- 담배	360	95	95	0	--
- 차(허브차포함)	4,009	3,713	2,466	1,823	-26.07
○ 중간제농축산물 전체	15,755	20,815	15,882	15,017	-5.45
- 식물성기름(열대성유지제외)	1,272	1,786	1,305	1,329	1.84
- 종자류	1,810	1,413	1,057	407	-61.49
- 당류	741	1,091	781	372	-52.37
○ 소비제농축산물 전체	210,718	222,146	156,660	150,558	-3.90
- 스낵류 (초콜렛포함)	19,941	21,328	16,145	13,089	-18.93
- 낙농제품 (치즈제외)	7,993	9,723	8,245	6,666	-19.15
- 신선채소	6,265	7,769	5,206	5,830	11.99
- 신선과일 (바나나제외)	24,944	23,253	10,845	9,935	-8.39
- 과일채소 가공품	17,959	18,496	13,008	13,595	4.51
- 주류(와인과맥주)	5,267	5,312	3,825	3,841	0.42
- 원예작물/절화	2,087	2,378	2,193	874	-60.15
- 커피(구운 것/인스턴트)	2,537	3,794	2,759	2,391	-13.34
- 향신료	2,497	2,678	2,109	2,057	-2.47
- 주스류	2,039	2,097	1,643	1,903	15.82
- 견과류	1,517	1,007	360	1,085	201.39
- 밤	1,467	957	321	824	156.70
- 배	23,862	21,581	9,786	9,209	-5.90
- 포도	634	900	501	608	21.36
- 딸기(신선)	0	36	33	9	-72.73
- 인삼(뿌리)	569	697	387	553	42.89

자료: USDA BIC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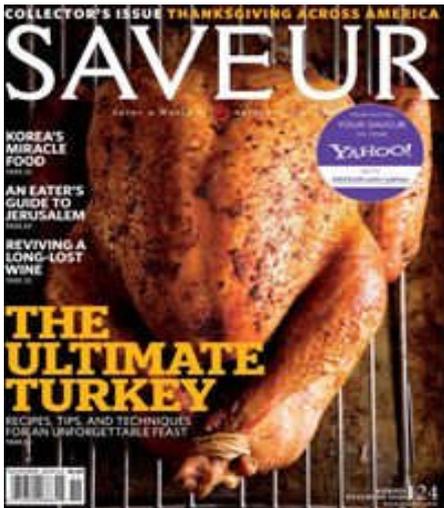
해외시장동향	미 국	LA aT
--------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한식세계화 관련]

#### □ 美 'Saveur Magazine', LA 한식당 소개

LA한인타운내 한식당들이 '세부어 매거진(Saveur Magazine.사진)'에 소개된다



지난 1994년 창간한 세부어 매거진은 '음식 전문 매거진'으로 단순한 음식의 소개가 아닌 음식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한 달에 35만부를 판매하는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다.

뉴욕시에 위치한 세부어 매거진은 2010년 3월호에 특집으로 다뤄질 'LA의 음식들'을 위해 12일 취재단을 파견하고 한인타운의 식당들을 취재했다.

가장 먼저 취재를 시작한 곳은 갤러리아 마켓 내부에 위치한 푸드코트. 취재진은 설렁탕 냉면 불고기 등 한인들에게 친숙한 음식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기자인 래리 나이드윈더씨는 "바비큐와 김치 외에 한식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한인들에게 친숙한 음식은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음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문화를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두 번째로 발길을 옮긴 곳은 '치킨 데이'. 한국식 양념 치킨이 LA는 물론 미동부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취재에 동행한 런던 노드만 사진기자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맛도 좋지만 우선 먹기에 편한 사이즈와 다양한 소스가 일품"이라며 "색깔 또한 은은한 황금빛을 띄우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손이 가게 한다"고 말했다.

나이트원더 기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LA한인타운이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멋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전국의 독자들에게 LA한인타운의 음식과 멋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 미국, '코스모스 김치' 주류 돌풍

코스모스김치가 코스트코 전국 25개주 매장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등 주류 시장에 김치 돌풍을 일으킨다.

LA 소재 코스모스김치(대표 데이비드 김)는 코스트코 캘리포니아 매장에 이어 뉴욕 워싱턴DC에서부터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미 전역으로 김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까지 포함해 코스모스김치가 들어가는 코스트코 매장은 텍사스 등 일부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 25개주에 걸쳐 있다.

데이비드 김 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북가주 베이 지역 코스트코 물류센터에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지난 6월 미 동남부에 이어 11월부터는 동북부도 커버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코스트코측이 개최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코스트코 물류센터 바이어들은 김치와 갈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북가주에서의 대박 소식을 듣고 코스트코의 다른 지역 물류센터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납품 계약으로 이어졌다.

코스모스김치가 북가주에 공급하는 물량은 남가주의 4배가 넘는다고. 특히 하와이 코스트코는 다른 지역 매장보다 전체 매출이 4배 가까이 높아 김치 판매에 거는 기대도 크다. 코스트코 미 전역 매장에 납품하면서 판매 물량도 현재보다 7~8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김치의 주류 시장 공략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통해 주류 시장에 김치를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모스푸드는 1971년 설립됐으며 지난 96년부터 이미 코스트코 남가주 매장을 통해 김치를 주류에 알리고 있다. 코스트코 외에도 랄프스 본스 알벗슨 세이프밸류 등 대형 마켓 체인과 월마트 수퍼센터에서도 코스모스김치를 만날 수 있다.

## [주류시장 동향]

### □ 미국, 복제가축 식품 증가.거부감 여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베리 폴러드가 소유하고 있는 '폴러드 농장'에 있는 400마리의 소들 가운데 일부는 문자 그대로 '똑같은' 소들이다.

이 농장에서 기르는 소 22마리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 소들인 것이다.

신경외과 의사이기도 한 폴러드는 "우리는 살이 잘 찌고 생산력과 번식력이 좋은 유전적으로 최고 품질의 소를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복제 가축과 그 새끼들에서 생산된 육류 등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미국 농민들은 폴러드와 같이 고품질의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좋은 가축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부지불식간에 복제 소의 고기나 복제 소가 생

산한 우유를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

동물 복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을 보유한 기업 비아젠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복제된 소와 돼지는 6천마리 가량으로 추산된다.

소 1마리 복제에 적어도 1만5천달러가 들고 돼지 1마리 복제에는 4천달러가 드는 등 가축 복제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은 복제 가축을 생산하는 농장이 미미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 복제 기술이 상용화되면 육류와 유제품 생산의 효율성도 커져 이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증가하는 수요도 부응하고 기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 복제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들이 아직 많다.

무엇보다도 복제 가축으로 생산된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여전하다.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IC)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은 가축 복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 복제 가축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가축 복제에 대해 도덕적인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복제 반대론자들은 복제 가축으로 생산된 제품 판매를 허용한 FDA의 결정도 단기간에 걸쳐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검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아젠의 마크 윌튼 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해 익숙해졌듯이 복제 가축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복제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미국, Costco vs. Coca-Cola '자존심 전쟁'

앞으로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찾아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AP통신에 따르면 대형 할인매장체인인 코스트코가 코카콜라와 제품 판매 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이면서 더이상 코카콜라 제품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코스트코는 최근 웹사이트에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하려 하지만 코카콜라에서는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카콜라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장에 비치돼 있는 제품은 그대로 판매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새롭게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것.

이에 대해 코카콜라측은 16일 "코스트코는 무척 중요한 고객이고 '공정성'에 입각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유통업체와 마진을 늘리기 위한 제조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두 '거인'의 싸움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컨설팅회사 윌리어드 비숍의 짐 허텔은 "두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이라며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미국, 먹는 음식 40% 버린다

미국인들은 한 사람이 하루에 1천400칼로리분의 음식을 버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40%에 해당한다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보도했다.

음식이 넘쳐나는 추수감사절에 때맞춰 발표된 전국 당뇨·소화기·신장질환연구소(NIDDKD)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버리는 음식의 양은 1974년에 비해 50%나 늘어났으며 버려지는 양을 모두 합하면 연간 150조칼로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공급되는 식품의 총량에서 실제 섭취된 양을 뺀 것으로, 섭취된 음식의 양은 인체 대사율과 공인된 미국인들의 체중을 근거로 계산됐다.

NIDDKD 보고서의 수치는 최근 나온 비슷한 연구들에 비해 20% 정도 높은 것이다. 이전의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직접 면담과 쓰레기 조사 등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의 양을 계산했는데 NIDDKD 연구진은 음식 쓰레기의 양이 실제보다 적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 연구진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공급량의 30%, 액수로 치면 483억 달러어치의 음식이 버려진다는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식량 부족 현상의 상당부분은 음식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과학진흥원(AAAS)의 온라인 학술지 사이언스나우에 최근 발표된 한 사회학자의 연구보고서는 식품 낭비가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소비자에 의한 것이 절반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NIDDKD 연구진은 미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비만 문제는 음식을 구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판촉활동이 극성스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아도는 음식은 모조

리 환경에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과잉공급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만 "전염병 수준인 비만과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담수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기름 총소비량의 4%인 3억 배럴이 버려지고 있어 환경과 자연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식량안정성'이 결여된 가구 수는 지난 2007년의 470만 가구에서 지난해 670만 가구로 늘어났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배를 굶는 인구 수는 10억 명에 달한다.

## [한인교포 마켓 동향]

### □ 미국, 막걸리 수요 폭발. 소주와 맛불을 대세

한식세계화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술' 막걸리 돌풍이 거세다. 다양한 맛과 개선된 품질로 한국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막걸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주 한인사회의 주류 풍속도마저 바꾸고 있다.

LA는 물론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주요 한인 거주지역에선 막걸리 판매가 폭발적 증가 추세다. 식당과 마켓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자 막걸리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식 먹거리들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막걸리의 세계 진출은 온전한 '한국 맛'을 완성시키고 있다.

막걸리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올 한해 미주지역에 수입된 막걸리는 약 120만병으

로 작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의 막걸리 수입 증가율은 '드라마틱' 할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소주와 막걸리가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아 마켓의 존 윤 매니저는 "막걸리 판매율은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판매율 1위는 아직 소주이지만 한국산 맥주의 판매율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한남체인 이근찬 매니저는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팔리고 있다"며 "맥주를 따라잡을 만큼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에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패밀리 마케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한인들의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졌다. 소비경기 위축으로 인해 식품업계는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패밀리 마케팅을 앞세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미주에서 방송된 대상 청정원의 브랜딩 광고는 패밀리 마케팅을 이끈 주역이다. 청정원의 광고 '힘이 되는 정원의 요리편'에서는 영화배우 정우성이 등장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한다. 이 광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요리로 힘을 내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청정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 □ 식품업계, '패밀리 마케팅' 힘 발휘

대상 청정원 '맛선생'의 광고도 건강한 이미지와 함께 가족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배우 정혜영은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는 건강한 먹거리 만을 사용하겠다고 천연조미료 맛선생을 소개했다. 청정원 맛선생의 맛수로 불리는 CJ 백설 다시다 '산들애'도 가족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강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도 패밀리 마케팅을 앞세운 '백설 프락토 올리고당' 광고로 화제를

모았다. 아역배우 왕석현과 전민서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각자의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을 폄평회하는 이 광고는 물엿이나 설탕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올리 고당이 들어간 우리 엄마의 멸치볶음이 최고라고 말한다. CJ제일제당은 자녀의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는 엄마의 마음을 자극하며 판매율 신장을 이끌었다.

상품이나 브랜딩 광고를 넘어 상품 이름에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제과는 '내 아이를 위한 엄마의 손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프리미엄 과자 '마더스 핑거'를 출시했다. 밀가루 대신 한국산 쌀을 쓰고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은 과자에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 안전성을 부각시킨 사례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유기농 설탕'과 '유기농 밀가루' 포장지에도 환하게 웃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담은 등 제품 포장에서도 가족을 강조했다.

<b>해외시장동향</b>	<b>E U</b>	<b>로테르담 aT</b>
---------------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가. 유럽연합위원회는 2010년부터 농업부분 투자 축소

유럽위원회는 2010년부터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할 것을 피력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그 동안 농업 분야에 많이 지출되었던 예산을 2013년 이후부터는 혁신, 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11월 하순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년 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 유럽 회원국 27개국간의 협상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프랑스농민이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아일랜드, 폴란드 농민이 그 다음이다. 이 제안서에는 그 동안 매년 12.5백억 유로가 농업지원 정책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정책에의 투자는 그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2013년부터는 성장과 일자리,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예산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EU 예산의 40 % 이상이 농업과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33 %는 도로 건설과 보전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계획서에 따르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유럽연합회비 할인혜택을 받아왔던 영국이 그 정당성을 잃고, 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84년 당시 영국의 수상인 마거릿 대처 총리의, "우리는 우리의 돈을 돌려 받고 싶다." 란 모토 아래 이 대 할인제도가 영국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나, 동 제안서를 통하여 정당한 회비를 내게 된다.

\* Source : Agd.nl

### 나. 네덜란드 유니레버그룹 매출 감소 및 할인행사 개최

유니레버사는 2009년도 3/4분기 소비자 중심상품의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였다. Dove, Becel(버터류),Ola(아이스크림류)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유니 레버 그룹의 3분기 실적은 더 많은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니 레버 그룹의 3분기 예상 매출액은 10억4천8백만 유로이었지만 10억2천만 유로로 집계되었다. 그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억4천만유로 보다 감소된 것이다. 환율의 영향을 배제한 기본 매출성장률의 기대치는 3.6% 밑도는

3.4%를 기록했다. 모든 지역과 각 부문에서 매출확대를 위하여 광고 캠페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은 작년 영업이익 2.53억 유로 보다 41%떨어진 1.45억 유로로 집계 되었다.

"우리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영업이익과 현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유니 레버사의 최고 경영자 파울 폴만씨는 말했다. 할인판매는 서유럽에서 3분기에 2.3% 낮춘 할인 판매 캠페인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 가격은 아시아는 1.3%,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의 가격은 0.2 % 씩 각각 높였다. 할인 캠페인에 의한 판매 증가 량도 아시아는4.4%,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는 3.8% 상승했다. 2008년의 높은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좋지 않지만 제품의 할인 판매 캠페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Source : agd.nl

#### 다. 유럽/ 유럽식품안전위원회 여섯 가지 식용색소에 대하여 언급

유럽 식품 안전 위원회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끝에 인공 식품 색소인 Quinoline Yellow (E104), Sunset Yellow FCF (E110), 그리고 Ponceau 4R (E124)의 1일 허용 가능한 섭취량 (Acceptable Daily Intakes, ADIs)의 수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패널들은 이 색소들의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는 양은 증가시키기로 결론 내렸다.

이 패널은 현재 기타 3가지 색소, Tartrazine (E102), Azorubine/Carmoisine (E122), 그리고 Allura Red AC (E129) 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패널에 따르면, 오직 Azorubine/Carmoisine (E122), 그리고 Allura Red AC (E129)가 함유된 다량의 식음료를 소비하는 소수의 어린이들만이 이들 색소에 대한 1일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

ANS 패널 회장직을 맡고 있는 John Larsen은 “많은 식품 색소들이 처음 승인된 이후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고, 사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색소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이것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된 색소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라고 말했다.

패널에 의해 재 평가된 6가지 색소들은 소프트 드링크, 베이커리 제품 및 디저트를 포함한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 패널은 Tartrazine(E102)의 경우 소수에서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5가지 색소들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부작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EFSA는 현재 EU지역에서 사용 승인된 모든 식품 색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EFSA에게 Southampton 대학에서 진행한 식품 색소와 식품보존제의 혼합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outhampton Study)가 발행된 이후 이 6개 식품 색소에 대한 연구를 우선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Source : EFSA Press release

## 라. 영국 Tesco 시장 점유율 상승

TNS(세계 시장조사 전문업체)가 11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esco 영국 식료품 부분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 시작된 12주 주기 자료 업데이트 이후 처음이다.

영국 최대 식료품 회사인 테스코는 영국 전체 식료품 소매매출의 3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30.6%보다 오른 수치라고 TNS는 밝혔다. 테스코의 매출은 4.7%가 상승하며 전체 소매업 매출액 상승폭인 4.4%를 능가했다.

TNS Ed Garner는 테스코의 최근 클럽카드 로열티 계획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여 페스티벌 기간동안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테스코는 최근 클럽카드 메일발송을 통해 다양한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출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촉매제를 추가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영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ASDA, Sainsbury, Morrisons 또한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그중 Morrisons은 매출신장 8.5%를 기록하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Morrisons은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Somerfield를 인수한 Co-operative에서 매장을 합병하면서 다시 top 4 업체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Waitrose(대형소매업소)는 매출액이 12.3%가 오른 반면, 영국내 할인 소매점들의 결합된 시장 점유율은 6.1%에 머물렀다. “2008년 말에 할인업체들은 큰 성장률을 즐겼지만 그 성장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조사부터 11월 1일까지 12주간 식품의 가격인상속도는 늦춰졌으나 가격은 3.2% 상승했다. “이것은 경기침체 특징 중 하나로 Trade-down 효과가 줄어들 것을 의미 한다”고 Garner는 덧붙였다.

\* Source : Just-food.com

## 2. EU(27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 동향(EU 역외)

### □ 수출

품 목	2008년	'08.7월	'09.7월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증가율(%)
전체	68,332	38,006	34,856	△8.3
육류 및 육류제품	5,384	3,042	2,687	△11.7
동물(生)	1,104	513	574	11.9
유제품 등	6,747	4,050	3,200	△21.0
어류, 갑각류	2,757	1,564	1,412	△9.7
곡류 및 곡류제품	9,980	5,069	4,925	△2.8
채소·과실류	7,947	4,560	4,210	△7.7
당류(설탕, 꿀)	1,475	804	763	△5.1
커피류, 차류, 향류	4,275	2,199	2,207	0.4
사료	2,437	1,305	1,483	13.6
기타 식재료	6,784	-	3,875	-
음료류	16,754	9,409	8,172	△13.1
담배	2,688	1,542	1,322	△14.3

### □ 수입

품 목	2008년	'08.7월	'09.7월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금액(백만유로)	증가율(%)
전체	80,209	45,912	42,633	△7.1
육류 및 육류제품	5,195	3,029	2,986	△1.4
동물(生)	344	177	149	△15.8
유제품 등	744	456	350	△23.2
어류, 갑각류	16,085	8,902	8,540	△4.1
곡류 및 곡류제품	6,346	4,237	2,086	△50.8
채소·과실류	20,702	11,626	11,936	2.7
당류(설탕, 꿀)	2,361	1,313	1,210	△7.8
커피류, 차류, 향류	11,110	6,170	6,560	6.3
사료	8,732	5,090	4,730	△7.1
기타 식재료	2,305	-	1,344	-
음료류	4,398	2,465	2,376	△3.3
담배	1,876	1,030	344	△66.6

\* 자료출처 : Eurostat

## □ EU 농식품 수출입 현황 분석

- '09. 7월 현재 전체 산업 수출의 5.6%에 해당하는 34,856백만유로 수출
  - 주 수출품목 : 곡류제품, 채소·과실류, 음료류, 식재료, 유제품, 육류 등
  - 주 수출국가 : 미국(5,080백만유로), OPEC(4,610), CIS(4,418), 한국·싱가폴·대만·홍콩(2,366), 일본(2,115), 중국(791) 등
  - 수출주력품목 대부분이 수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는 유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32억유로
  - 동물과 사료만이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09. 7월 현재 전체 산업 수입의 6.2%에 해당하는 42,633백만유로 수입
  - 주 수입품목 : 채소·과실류, 수산물, 커피류, 사료, 육류, 음료류 등
  - 주 수입국가 : 남아프리카(12,470백만유로), 미국(2,484), 중국(1,920), 한국·싱가폴·대만·홍콩(1,702), 노르웨이(1,722) 등
  -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어 수입물량도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반적인 품목들이 감소세를 보임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차류 소비가 확대되었으며, 담배 수입은 전년 대비 66.6% 감소
- \* EU의 식음료 교역규모는 '07년 기준 세계 교역규모 7조1천억유로 중 최대로 전년대비 6.9% 신장된 1억2천만유로에 달함(출처 : eurostat)

## □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09.9월 대EU 수출은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식품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1.3% 감소한 133백만불
  - 수출실적 : ('07) 162 → ('08) 189 / ('08.9) 135백만불 → ('09.8) 133
    - 농산물 : 55.6백만불 → 전년대비 7.4% 감소
    - 축산물 : 2.7백만불 → 전년대비 9.7% 감소
    - 임산물 : 3.5백만불 → 전년대비 27.9% 감소
    - 수산물 : 71.2백만불 → 전년대비 6.6% 증가

- '09.9월 대EU 국가별 수출은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이 수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수출이 늘어 성장세 유지
  - 스페인 32.7백만불(15%↑), 프랑스 16.4(34.6↑), 영국11.9(35.9↑), 네덜 15(39.9↓)
  - 선진 서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 또는 정체상태에 머무는 반면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수출이 두자리 수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 추세

### 3. EU 경제 동향

#### □ 유럽 경제동향

- 세계 경제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3/4분기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EU지역 역시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 산업생산 : 1/4분기  $\Delta 7.5\%$  → 2/4분기  $\Delta 3.0$  → 8월현재 1.1
- 한·EU FTA 향후 추진 계획
  - 협정문 번역작업(한국어 및 EU측 22개 언어)을 거쳐 2010년 1/4분기 중 정식 서명 추진
  - 정식 서명 이후 양측 국내절차(우리 국회 비준 동의 등)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효 전망
  - EU는 미국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높고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농산물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등 안전대책 확보
- 네덜란드 중앙 통계청(CPS)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는 10월경에 전월 대비 생산 order와 생산자 신뢰지수 개선으로 미약하지만 호전된 것으로 평가
  - 네덜란드가 경제회복에 더딘 이유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대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경제 개선 이후에 일부 시간이 지나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투자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음

## □ EU 농식품 분야 동향

- EU 농식품 소매업 유통현황
  - 2009년 9월은 전월 대비 소매업의 거래량이 0.4% 하락한 것으로 집계
  - 전월 대비, 품목별로는 식품, 음료, 그리고 담배 거래량이 0.5%가 감소하였고, 비식품 부분에서는 0.3%가 감소.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 2.5%, 슬로바키아 1.1%로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리투아니아 -7.6%, 에스토니아 -2.4%, 포르투갈 -2.0이 최대 감소율을 보임
  - 전년 대비, 품목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 부분은 1.1% 감소, 국가별로는 폴란드 5.4%, 오스트리아 3.1%로 최대증가율을 보임
- EU 농업농촌개발위원회는 EU 회원국 낙농업체에 15천유로 한도로 지원 승인
  - 현재 과다 생산으로 인하여 수익률 악화 및 지독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낙농업체에 각 국가별로 15천유로 한도로 자금지원 승인
  - 위원회 Mariann Fischer Boel 위원장은 이번 자금 지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낙농업 농가들이 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국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 제품에 요오드 성분함양에 대한 주의규정 부착 의무화
  - 특히 최근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스시용(김밥용) 김은 1장 또는 3g 이상 섭취할 경우 배탈 등 부작용이 있음을 반드시 부착해야 함

### 독일어

- Lebensmittel mit hohem jodgehalt
- Nur in kleinen mengen (3g oder 1 teelffel) verzehren zu hohe jodaufnahme kann im einzelfall zu gesundheitlichen nebenwirkungen fueren

### 한국어

- 요오드 성분 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임
- 소량(3g 또는 1장)의 제품 섭취를 권장하며, 과다 섭취시 개인별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7	2008	2009P	2010P
GDP 증가율	2.9	0.9	-4.0	-0.1
민간소비 증가율	2.2	0.9	-1.5	-0.4
정부지출	1.9	2.2	1.9	1.7
총투자 증가율	5.4	0.1	-10.5	-2.9
실업률	7.1	7.0	9.4	10.9
인플레이션	2.4	3.7	0.9	1.3
인구수	493	495	498(P)	500(P)
환율 (11.20 매매기준율)	1,353.92	1,862.49	1,730.36	-

\*Source : TradingEconomics, EU집행위 중기 전망